



당신의 후원금은

**따뜻한 격려**입니다

굿모닝인천  
2007. 11

## 깨끗한 정치후원금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갑니다

-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국회의원에게 후원
- 기탁금기부센터 ([www.give.go.kr](http://www.give.go.kr)), 후원금 ([www.arumin.co.kr](http://www.arumin.co.kr)) 또는 각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
-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의원 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후원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에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한 공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보세요!

● 기탁금기부센터 : [www.give.go.kr](http://www.give.go.kr) ● 문의전화 : 1588-3939

※ 기탁금기부센터와 후원금기부센터의 경우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과세한 내역은 기탁금기부센터 홈페이지 참조)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 길, 그리고 자화상



홍윤표 作 · 72.7cm×53.0cm · Oil on Canvas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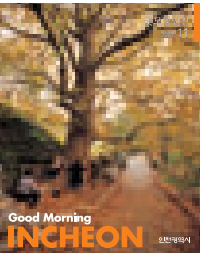
나는 매순간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화상을 즐겨 그린다.  
얼마 전에 터를 마련한 강화에서는 도회지에서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과 지내고 있어 또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내 모습도 그 속에 있다.

— 홍윤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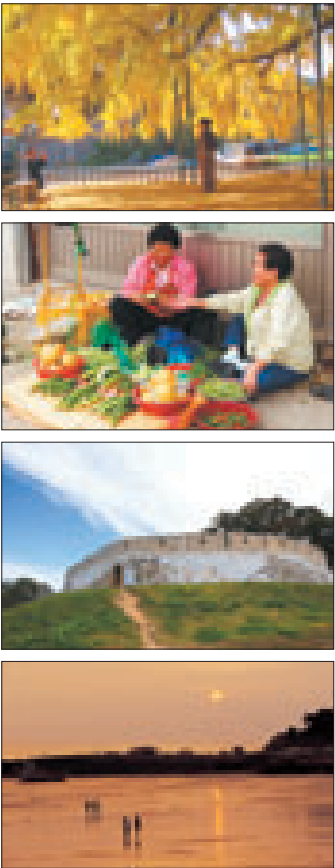
#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COVER  
자유공원의 만추



# contents November 2007 통권 167호



04	인천의 만추(晩秋) 풍경	단풍에 눈 시리고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 저리다
06	Open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 개원
08	행복느낌 90.7	경인방송 Sunny-FM 개국 10주년
10	공간 속으로	강화 시골장터
12	Zoom in	재래시장 활성화
14	역사산책	강화도 연미정
16	이달의 공연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18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Knocking on the door
19	뉴스포커스	국립 생물자원관 개관
20	굿인친 굿뉴스	'세계 7개 도시 정상회의 개최' 외
24	시의회 소식	'제159회 임시회 조례안 63건 처리' 외
26	View	2009년 국제항공연맹총회 인천 유치
27	e인천	인터넷방송 인천투데이
28	글로벌인천	외국인지원
32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대청도
33	모닝커피 한잔	예의바른 손님으로 살다 가기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골절
35	김치찰각	'날아라 스카이콩콩' 외
36	문화마을 순례	작전여고 연극동아리 '악(악)'
38	인천 200% 즐기기	시내버스타고 섬 여행
42	동네방네	만삼이네 도롱뇽 마을
4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44	인천이 담긴 詩 ⑪	윤부현의 '경인합승'
46	꿀돌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⑨	국내 첫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최순자 교수
52	독자글 마당	이번달 주제 '책'
54	Info Box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외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바다의 유유, 영양만점 '굴'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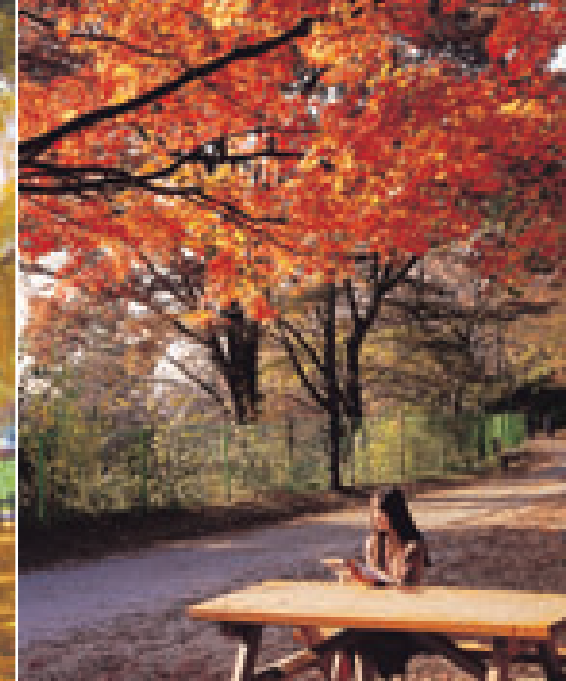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릉에 눈사람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 걸려라

가을이 걸음을 재촉한다. 어여쁜 색깔로 머물렀던 시간도 잠시, 이내 빛바랜 낙엽이 되어 갈바람에 쓸려가 버릴 것이다. 이제 가을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 끝을 따라가 본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   |   |   |
|---|---|---|
| 1 | 2 | 3 |
|   | 4 | 5 |
- 1. 성공회 강화성당의 늦가을 마당
  - 2. 장수동 은행나무
  - 3. 월미산 산책로
  - 4. 고려산 종턱의 억새군락지
  - 5. 강화북문 문루



강 화읍 북산의 가을 채색은 도시보다 짙다. 고려궁의 돌담을 끼고 오르는 고갯길에는 누가 수를 놓은 듯 색색이 고운 물이 들어 있다. 단풍 나무의 붉은 빛, 은행나무의 황금빛, 벚나무의 주홍빛...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

가을 산은 단풍으로 시작해서 억새로 마무리한다. 단풍이 이내 빛바랜 낙엽이 되어 갈바람에 쓸려나가면 그 빈자리를 순백색의 억새가 채운다. 강화 고려산에 오르면 가을의 끝물인 억새의 사연을 받을 수 있다. 산마루에 오르니 바람이 길을 잃은 것 같다. 그 바람 따라 서로 기대고 허리를 꺾었다 일어나는 가녀린 억새의 군무는 마치 매스게임을 하는 듯하다.

장수동 은행나무를 쓰담으면 '시간의 주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지지대 없으면 가지를 버텨낼 힘조차 없는 노목이지만 매년 늦가을 그 밑에 가면 영험한 노란 물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월미공원 산책로에는 온갖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차려 입고 새하얀 겨울로 안내하기 위해 마지막 노제(路祭)를 지낸다. 이미 섬을 가을색으로 채색하고 바다를 건너온 찬바람은 월미산을 거침없이 붉게 태워버린다. 🍂





# 햇빛 찬란한 아라비아로 간다

우리시에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인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이 문을 열었다. 찬란한 태양 아래 모래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세계, 이제 인천에서 아라비아의 꿈과 환상이 펼쳐진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 중동·이슬람, 더 큰 꿈을 향한 동반자

중동(中東), 그 미지의 세계를 고스란히 옮겨 온 모래사막과 터번을 두른 검은 피부의 사람들, 곳곳에 새겨진 이슬람 전통문양은 중동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곳은, 아시아 최초의 중동 문화원인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Korean Centre for Middle Eastern & Islamic Culture)’이다.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은 한국과 중동·이슬람권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지난 10월 22일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안상수 시장과 아무르 무사(Amr Moussa) 아랍연맹사무총장을 비롯해 주한 중동·이

슬람 대사 등 한국과 중동·이슬람 문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원식이 끝난 후에는 청라지구에서 ‘아랍거리’ 명명식을 갖고 높이 1m의 석제 조형물을 세웠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를 꽃피울 중동문화원은 지난 2006년부터 건립이 협의됐으며, 작년 10월 안상수 시장과 한덕규 한국·중동협회 회장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리고 2012년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이전해 아시아 최고의 중동문화원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중동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국과 중동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이슬람권 국가에 2009 인

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인천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뜨거운 태양아래 모래사막이 펼쳐진 미지의 세계. 70·80년대 우리는 그 곳에서 건설 붐을 일으키며 장밋빛 미래를 일궈냈다. 그리고 지금, 경제발전의 동반자인 중동·이슬람 국가와 함께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의 꿈을 실현시키려 한다.

## 아라비안 판타지 속으로 출발~

어린시절 알라딘과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으로 그려지던 신비의 땅 중동. 그 아스라한 기억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진다. 중동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즈니스 관련 정보까지, 한국 속의 작은 이슬람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에서 아라비안 판타지에 빠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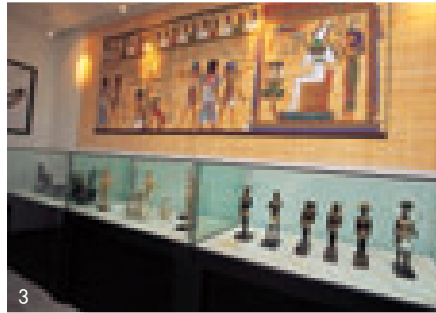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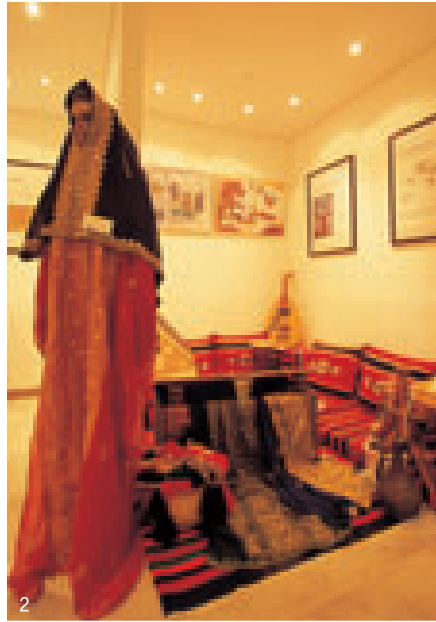
**| 전시관 |** 중동·이슬람권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슬람교도들이 예배하는 성원인 모스크(Mosque)와 책, 디지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슬람 경전 코란(Koran) 등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실�크로드 관련 전시와 페르시아, 터키 등 이슬람 문화 관련 자료도 볼거리다. 특별전시관에서는 중동·이슬람 문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테마를 잡아 전시회를 연다. 12월 말까지는 주한 이집트대사관의 협조로 ‘고대 이집트 파라오전’을 진행한다. 여기서 잠깐! 관람 포인트. 전시관 내에 설치된 패널은 모두 중동·이슬람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은 것으로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하자. 중동·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강의실 |**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등 이슬람문화 전문가들로부터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내년 봄부터는 경제 전문가들이 중동 비즈니스 관련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랍어를 교육하고 중동·이슬람권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이슬람 관련 영상물을 만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 영화, 뮤직비디오 등 각종 영상물을 보면서 이슬람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 자료실 |** 영화, 음악, 책 등 이슬람 관련 문화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였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중동 현지의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고, 알자지라(AlJazeera) 등 20여개의 이슬람권 채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권 현지인은 물론 이슬람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문화쉼터로 손색이 없다.

**| 비즈니스 센터 |** 국내 거주 중동·이슬람인들이 한국 관련 비즈니스 및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인터넷 등이 아랍어로 지원되며, 중동·이슬람권 전문가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상담도 이루어진다. 중동지역의 관세법과 통상정책 등 중동 비즈니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밖의 즐거움 |** 중앙 홀은 이슬람의 색채가 진하게 배어있어 기념촬영을 하기 좋다. 바닥에 깔린 모래사장 그 위에 서 있는 낙타의 모습을 보노라면, 금방이라도 아라비안 전사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올 듯하다. 문화원을 구경하다 슬슬 시장기가 돌면 카페테리아를 찾자. 저마다의 품미로 유희하는 아랍 고유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



1. 중동문화원 중앙 홀
2. 이슬람 생활문화 관련 전시
3. 고대 이집트 파라오전
4. 중동문화원 개원식을 찾은 인사들

## ▶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원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대흥빌딩 3층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은 휴관  
관 람 료 : 무료  
문 의 : ☎ 432-1778, 9 | www.islamicculture.or.kr

# 우리함께 행복 주파수를 맞춰요~



라디오인천이 지난 10월 개국 10주년을 맞아 사명을 경인방송으로 바꾸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지난 10년간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으로 사랑받아 온 경인방송.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잔잔한 감동을 뿌리고 행복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경인방송

## 인천 유일의 공중파로 사랑받은 10년

경인방송이 지난 10월 11일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경인방송은 1997년 인천방송 'iTV' 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시작한 이래, 2000년 사명을 '경인방송' 으로 바꾸고 권역을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넓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인방송의 전파를 탄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의 경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거구의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던 박찬호의 당당한 모습은, 당시 IMF외환 위기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메이저리그를 생중계하며 방송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경인방송의 도전은 계속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리얼TV 시리즈는 현장의 숨소리까지 전하며 한국 방송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 한국 방송 최초로 선보인 컴퓨터 게임 관련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E-스포츠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렇듯 새로운 방송매체로 주목받던 경인방송은 2004년 12월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경인방송은 지난해 4월 사명을 '라디오 인천' 으로 바꾸고 라디오 전문매체로 새롭게 도약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인방송이라는 이름이 인천 유일의 공중파 방송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인천시민을 비롯한 청취자들에게 친숙하다고 판단하여, 사명을 다시 경인방송 Sunny FM으로 바꾸고 새 미래를 열고 있다.

## 행복느낌 90.7, 우리함께 Sunny FM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으로 사랑받아 온 경인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경인방송 Sunny FM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번 가을개편은 배칠수, 허수경 등 인기 진행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을 한층 다양하게 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정보를 약속한다.

경인방송 Sunny FM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1천만 청취자와 함께 호흡하며 삶의 행복으로 깊숙이 자리할 것이다. 🍷



## 주요 신설 프로그램



### | 허수경의 가요세상 |

매일 오후 12시~2시  
오후를 시작하는 12시가 변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부드럽고 편안한 진행으로 사랑받는 DJ 허수경이 당신의 일상을 행복으로 물들인다. 축하사연을 전하는 '축하해 주길 바래', 세상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차카게 살자', 음악선물로 점심시간을 즐겁게 하는 '도시락樂', 서로 다른 두 곡으로 한낮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동상이Feel' 등이 전해진다.



### |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 |

매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인천토박이 개그맨 배칠수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생활하면서 겪는 고충을 함께 푸는 '신문고를 올려라', 재테크와 살림 노하우를 전하는 '살림의 재구성', 매주 이슈가 되는 인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초대석 Life is live' 등이 꾸며진다.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 가 때론 친구처럼 때론 인생의 조언자로 삶에 힘을 북돋워 줄 것이다.



### | 윤택, 김형인의 두 시가 좋아 |

매일 오후 2시~오후 4시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두 남자, 개그맨 윤택과 김형인이 나른한 오후를 일깨운다. 청취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밥은 먹고 다니냐', 신인가수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짹하고 해달', 리믹스 음악을 선보이는 '리믹스 차트' 등의 코너가 즐거운 오후를 약속한다.



### |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

매일 오후 4시~6시  
70·80년대를 풍미하고 최근 13집 As First를 발표한 가수 백영규가 라디오 청취자들의 가슴을 두드린다.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GO! GO! 과거여행', 청취자가 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나도 한다 DJ!'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연륜이 배어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억여행을 떠나보자.

■문의 : 경인방송 ☎ 466-2220

## OBS 경인TV 개국

### '희망과 나눔의 빛'을 전합니다.

1997년 인천방송 iTV가 개국하면서 한국 방송계에 새 장이 열렸다. 하지만 경인방송은 2004년 방송이 중지되면서 아쉬움을 남긴 채 시청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지금, 경인지역의 새 민영방송인 OBS 경인TV의 개국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경인TV는 최근 2층 사무동과 단층 방송센터를 갖춘 1만6천여㎡ 규모의 사옥을 세우고, 스튜디오 및 조종실의 장비 설치 작업을 마쳤다. '스타 PD' 이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명교수로 널리 알려진 주철환 사장을 중심으로 iTV 조합원과 새로 뽑은 경력직 직원들로 이뤄진 220여명의 창사 멤버도 구성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경인TV의 당초 개국 예정일은 11월 1일.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방송허가를 늦추면서 개국일이 11월 중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 OBS 경인TV가 '희망과 나눔의 빛'이라는 슬로건처럼 인천과 경기 지역에 행복을 널리 전하리라 믿는다.

문의 : OBS 경인TV ☎ 680-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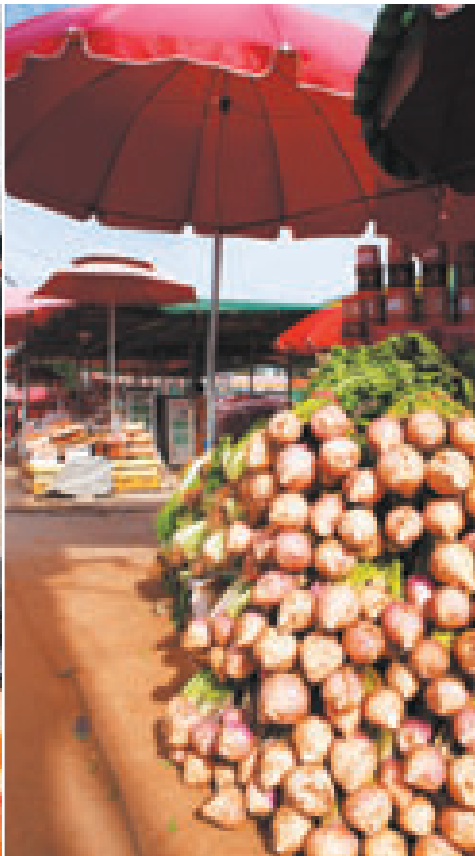
# 사라져가는 그림 한 조각



시골 장터나 재래시장은 경제공간이자 문화공간이다. 그곳은 질박한 웃음과 푸짐한 덩, 소문과 정보, 지역특산물과 도시의 공산품들이 교환되는 난장(亂場)이다. 문화는 즐거움이고 감동이며 추억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도 훌륭한 문화마당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



- 2 3 4
1. 온갖 가을견이를 파는 할머니
2. 족발, 만두 등 시장은 언제나 푸짐하다
3.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고물상 할아버지
4. 강화의 특산물 순무는 어디든 쉽게 만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밀려 추억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렸을 때 시골 장터나 읍내 재래시장에서 나물과 두부, 돼지고기 반근, 기차표 운동화 등을 산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기억이 아니라 문화적 추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붓집 등짐 짊어지고 고개 너머 개울 건너 물산과 사람이 모이는 시골장터. 그곳에서는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구수한 입담과 정겨운 살 내음도 판다. 물건 사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장 구경은 역시 사람 구경. 장꾼 따라 구경꾼도 몰려든다. 좌판 펴놓고 나물 파는 할머니, 치렁치렁 늘어진 빨강 검정 고무줄을 파는 할아버지, 뽕튀기 아줌마, 팔도에서 모은 고물을 파는 아저씨 등 상인들도 다양하다. 게다가 주인 손에 이끌려 온 병아리, 오리, 염소, 강아지까지...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룬다.

인천지역에서 그런대로 시골장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강화읍의 풍물시장이다. 상설시장으로 아치형 건

물 2동 안에는 밴댕이와 전어, 말린 생선과 젓갈류를 판매하며 즉석 찢감도 썰어주는 어물전, 조·보리·콩 잡곡을 파는 곡물전, 당귀·구기자·오미자 등을 파는 약초전, 빗자루·플라스틱통 등을 파는 잡화전, 그리고 수수전병에 먹음직스러운 아바이 순대와 돼지 머릿고기, 인삼막걸리와 국수를 파는 음식점 등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풍물시장뿐만 아니라 매월 2일과 7일에 5일장도 열린다. 장날이 되면 풍물시장 사이 공터의 할머니들 장터로부터 터미널 도로변의 노점상, 인근의 강화인삼센터, 강화토산품 판매장까지 하나의 동선을 이루며 '큰 장'을 이룬다.

인근 김포나 검단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은 예전만 못하다. 이제 강화풍물시장도 시설개선 작업에 의해 머지않아 인근의 콘크리트 신축건물로 이전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터를 찾는 손님들은 고향의 맛과 흥도 그 곳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

# 현대화, 경영혁신으로 ‘공룡’ 마트와 겨룬다

부평 진흥시장

불황에 허덕이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01년부터 ‘고객이 즐겨 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을 목표로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시장특화육성, 상권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우리시에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25개, 등록되지 않은 시장까지 합하면 56개에 총 점포수가 6천976개에 이른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위세에 눌려 지나간 침체의 늪에 빠졌다. 우리시가 이 늪에서 빠져 나오도록 무엇보다 ‘시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남부종합시장 등 14개 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 비나 눈이 와도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

하고, 가좌시장 등 16개 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다. 모래내시장 등 8개 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했고, 갈산시장 등 13개 시장은 안내시설, 하수관 설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609억원을 지원해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된 시장은 28개에 이른다. 이렇게 시설을 현대화한 시장은 매출이 증가하는 점포가 19.3%, 고객이 증가한 점포가 23%로 아직 현대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장의 각각 2.7%, 2.3%에 비해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성과를 보여준다. 때문에 앞으로 524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21개 재래시장의 시설을 꾸준히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불편하다?’ 편견이예요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영구조개선, 청결시범업소 지정운영, 전자상거래 구축,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으로 대형 마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왔다. 경영현대화를 지원받은 시장은 11개로 35억6천만원에 이른다.

반찬을 위생용기에 보관하는  
용현시장 건너니네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부평시장 신도매고기백화점



깔끔하게 정리된 용현시장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힘을 보태 재래시장이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용현시장은 경영현대화로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해 ‘시장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주변 1km 이내에 전국적인 대형 할인매장이 속속 들어서자 용현시장 상인들은 고육지책으로 지난 1월부터 점포마다 한 품목 이상 최대원가 50%까지 세일을 하는 왕대박세일을 매월 22일~28일에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원금 없이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일을 실시하는 것. 덕분에 단골 고객뿐 아니라 세일기간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소비자들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왕대박세일의 기세를 몰아 7월부터는 150개 점포에서 보너스공용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값의 일정부분을 쿠폰으로 돌려주고, 쿠폰이 모이면 언제든지 가맹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어 쿠폰 모으는 재미로 시장을 찾게 했다.

한편 부평시장의 신도매고기백화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가격으로 승부해 부평시장에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농장에서 직접 길러서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질이 좋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 ‘불결하다?’ 안심해도 좋아요

시장에서는 많은 먹거리들이 생산되고 판매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표 먹거리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불결하다’는 편견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 우리시는 현지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재래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재래시장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남구 신기시장에 이어 올해는 신포시장, 용현시장, 부평·진흥시장을 식품안전이 강화된 시범시장으로 지정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운영 시장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눈높이식 맞춤지도를 하고 있다.

## 받는 기쁨, 사는 즐거움 재래시장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도 시장을 찾게 하는 매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인천시장상인연합회’ 이름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30개 재래시장과 15개 지하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5천원권, 1만원권 등 소액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성상 반찬이나 채소 같이 적은 금액이 거래되는데 꼭 알맞다.

상인연합회는 추석명절을 즈음해 상품권 경품 대잔치 ‘1,120만원을 잡아라’ 이벤트를 열었다. 10월까지 상품권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권 500권을 주고, 매주 추첨을 통해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등 총 1천120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한편 우리시는 추석명절에 기업체 등에서 선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덕분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75억원어치가 발행돼 52억2천만원 가량의 상품권이 사용됐다.





역사산책 | 강화도 연미정

# 남과 북의 바람이 함께 노닐다

연미정(燕尾亭)은 제비꼬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물의 끝 지점과 바다의 시작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이 정자에서의 달맞이는 강화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절경이다. 하지만 연미정의 아름다움 이면에는 쓰라린 역사가 흐르고 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연미정은 북한 땅이 마주 바라보이는 강화도 월곶리 끝자락 뽕죽 튀어나온 곳(串)의 봉우리에 고풍스럽게 지어진 정자이다. 정자 끝에서 DMZ 안에 있는 무인도 유도(留島)를 바라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유도는 한강의 막바지에 있는 섬으로 남과 북의 산하를 씻은 물이 섞이는 곳이다. 정자에 서면 북녘 땅 개풍이 바로 눈앞이다. 소리라도 지르면 송악산에 부딪힌 메아리가 되돌아 올 정도의 거리이다.

옛날 서해에서 서울로 가는 배는 이 정자 아래에서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강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썰물 때는 물이 빠져 나가는 흐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물살이 세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한 줄기는 서해로, 또 한 줄기는 강화해협으로 흐르는데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 하여 연미정(燕尾亭)이라 이름 붙었다 한다.

언제 처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고종이 강화로 천도한 후 1244년에 시랑(侍郎) 이종주에게 명하여 55명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여름 공부를 시킨 곳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썸머스쿨'을 연 정자로, 경관이 뛰어난 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시원하게 공부했던 곳이다. 그 뒤 조선 중종 5년(1510) 삼포왜란 때 큰 공을 세운 황형에게 이 정자를 주었다고 한다. 연미정은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조선이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으며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민간인통제선 안에 거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정자의 구조는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 겹처마로 10개의 돌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에 면적은 약 40㎡이다. 정자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2그루가 정자의 수문장처럼 위엄있게 서 있다.

정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여러 번의 환란 때문에 성치 못한 몸으로 지내오다가 1744년(영조 20)에 유수(留守) 김시혁에 의해 중건되었다. 서남쪽 모서리의 기둥은 6·25전쟁 때 포탄에 맞아 세 동강 난 것을 1976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 복원정화사업 때 붙여 다시 세운 것이다. 🍂



## 가는 길

강화대교 끝 지점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와 강화인삼센터 주차장으로 진입한다. 좌회전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달리면 검문소가 나온다. 연미정을 관람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분증을 맡겨두고 월곶돈대로 오르면 그 안에 연미정을 볼 수 있다.

📍 연미정 주변에는 '포토라인'이 설정돼 있으며, 구역 이외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돼 있다. 관람을 마치고 검문소를 벗어날 때 카메라 검색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군보안에 위반한 사진은 모두 삭제 당한다.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연극축제



일시 \_ 11월 10일 ~ 11월 25일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 420-2020

2005년 시작돼 올해 두 번째로 기획된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은 관객들이 선호하는 대학로의 우수공연작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것이다.

공연명	날 짜	시 간	관람료
시리동동 거미동동	11월 10일(토)	오후 2시 / 5시	10,000원
	11월 11일(일)	오후 2시 / 5시	
휴먼코미디	11월 14일~16일(평일)	오후 7시 30분	25,000원
	11월 17일~18일(주말)	오후 2시 / 5시	
날 보러 와요	11월 24일(토)	오후 2시 / 5시	25,000원
	11월 25일(일)	오후 5시	

단체할인 30인 이상 30%, Culture Leader 유료회원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0%, 청소년 개인 40%, 학생단체 50%(단, 시리동동 거미동동은 제외됨)

## 첫 번째 이야기 시리동동 거미동동



이야기와 영상,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체험 콘서트이다. <음악동화>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곡과 시와 동화, 그림과 악기와 노래와 율동이 모두 우리 정서에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와닿는 무대이다. 작곡가 신동일 교수가 직접 지휘하고 현악4중주와 피아노, 해금, 피리, 타악기 등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융합한 독특한 음식의 실내악단과 함께 음악과 영상을 동시에 즐기는 이번 공연은 ‘구름으로 장단 배우기’, ‘노래마다 이어지는 다양한 율동놀이’ 등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특별한 공연이다.

## 두 번째 이야기 휴먼 코미디

많은 아들이 <휴먼코미디>에서 웃음의 소재를 찾는 까닭은 이 공연이 저급한 몸짓, 억지스런 말장난으로 이어지는 억지웃음이 아닌,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웃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미디의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과 움직임의 고찰로 시작된 연극 <휴먼코미디>는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 <휴먼코미디>는 <세 요리사>, <한 남자와 두 여자>, <노래>, <축구>, <추적>, <가족> 등의 많은 에피소드 중 <가족>, <생면>, <추적>의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눈물과 웃음이 함께 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 세 번째 이야기 날 보러 와요

연극 <날 보러와요>는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점차 변해가는 형사들을 통해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피폐해져가는 인간 군상을 내러티브하게 그리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화’를 무겁게 다루되, 슬프면서 때론 유쾌하게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점점 농밀해져 가는 사건의 긴박성은 극에 치닫는 순간 관객들의 숨을 멎게 만들고, 모두가 숨죽인 순간 조용



히 흐르는 내레이션은 인간 심리를 극대화하는 공포의 결정체를 이룬다. 작은 소극장, 수사반 사무실과 취조실 단 두 개의 공간은 제한 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연극의 묘미를 최대한 발휘한다.

대학로 최고 흥행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의 손종학, 10년 동안 ‘날 보러와요’의 핵심배우이자 연극 <칠수와만수> 연출을 맡았던 배우 유연수가 극의 중심주 역할을 해 주고, 2007 서울연극제 대상수상작 ‘발자국 안에서’에서 변질되어가는 예술가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었던 정승길이가 김형사로 분하여 서울출신 엘리트형사를 연기한다.

### ★ 11월의 만남 패키지

(시리동동 거미동동, 휴먼 코미디, 날 보러 와요) 3개 공연을 한번에 구매시 50% 할인이 적용됩니다(단, 1588-2341 전화예매만 가능하며, 예매 후 개별공연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3개 공연 정사가 60,000원 → **30,000원**

### ★ 수험생을 위한 깜짝 이벤트

수능시험일인 15일 이후 공연부터는 수험표를 지참하고 관람하는 수험생에게는 특별할인을 적용합니다(단, 1588-2341 전화예매와 현장판매만 가능하며, 꼭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휴먼코미디>, <날보러와요> 정사가 25,000원 → **10,000원**



## 이탈의 공연

## 막上막下

월   11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1	
5	6	7	8	9	10	11
12월	1	2	3	4	5	6
11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1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1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2월 1일
1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1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1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11월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1월 31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4월 31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6월 31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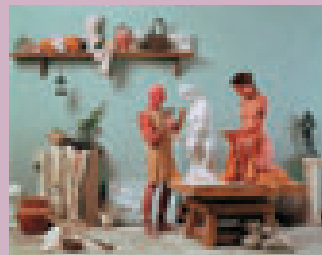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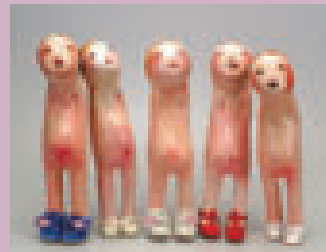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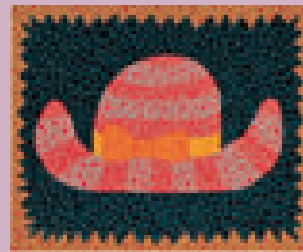


## ‘Knocking on the door’

기간 \_ 11월 10일~12월 30일(51일간)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해원갤러리

문의 \_ (사)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조직위원회 ☎ 772-7727 www.iwabiennale.org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미술을 인천에서 만날 수 있다. 1996년부터 기획, 2004년 제1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이후 2006년 Pre-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의 여성 미술비엔날레이다.

세계 여성미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제의 장이 될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는 ‘Knocking on the door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본 전시, 특별전, 부부전, 지역 미술인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시에는 10개국 3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신디 셔먼(Cindy sherman), 마리 로랑생(Marie Laurencin), 이성자, 천경자,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Phalle), 캐테 콜비츠(Kathe Schmidt Kollwitz) 등 국내외 유명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특별전에서는 낸시 랭, 유수코 이바(Yusuko Iba), 아-리-예(Yi-Li Yeh)를 비롯한 다양한 신세대 작가들의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 작품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국여성작가개인전, 한국미술계의 유명한 부부작가 초대전, 세계최초의 여성미술비엔날레를 축하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의 인천미술인전,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전과 인천예고 출신작가 폐막전이 준비되어 있다.

## 한국에 있는 모든 생물과의 만남

동양 최대 규모의 표본 수장고를 갖춘 국립 생물자원관이 지난 10월 10일 서구 경서동에 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소식에 참석, 생물주권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2020년까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생물종을 밝혀낼 것”이라며 “한반도의 골격이 되는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복원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등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 생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구단지 내에 자리잡은 자원관은 한반도 고유생물 및 자생생물 표본 985종 4천600여점을 전시하고 생물자원에 관한 패널, 모형 및 매직비전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모두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된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체험전시실, 강당, 세미나실을 갖춘 전시·교육동은 교육 시민들에게 ‘생물 교육의 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전시실은 한반도 생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생물과 자생생물을 전시한 제1전시실, 한반도 생태계 디오라마와 함께 생물자원 다양성의 보전을 주제로 한 제2전시실, 해양생태계를 디오라마 기법을 통해 재현하는 디오라마실로 구성되었다.

또한 ‘알-새로운 시작과 탄생’을 주제로 탄생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 자생포유류 코너, 고유식물 6개 속이 전시된 식물코너, 살아있는 생물자원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등이 있다. 이밖에도 전시·교육동에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 부근의 모습을 축소, 재현한 ‘꽃자왈 생태관’, 어린이 체험학습실, 정보자료 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생물자원관은 현재 수장·연구동에 118만여점의 생물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15개 수장고에는 모두 1천100만점의 표본을 수장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18세기 이후부터 정부 지원 아

래 생물자원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1759년 설립된 영국 큐식물원은 식물 2만종과 표본 600만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1820년부터 전세계에서 각종 작물 56만여점을 확보해 유전 정보 전산망을 구축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생태연구 분소를 만들어 각종 생물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생물자원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

문의 ☎ 590-7000





## 세계 7개 도시 정상회의 개최



우리는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우리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6개국 7개 자매도시의 대표들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자매도시의 시장 및 대표는 마르샤 라모스(Marsha Rairez Ramos) 미국 버뱅크 시장, 키타하시 겐지(Kitahashi Kenji) 일본 키타큐슈 시장, 세사르 호세 보호르 케스 사파타(Cesar Jose Bojorguez Zapata) 멕시코 메리다 시장 등이다. 이들은 ‘자매도시간 새로운 발전방안’을 주제로 자매도시간의 우호를 다지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인천선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인천선언에는 첫째, 자매도시 간에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둘째, 도시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한 물류 관광, 환경, 경제 분야의 교류 증진, 셋째,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아·태도시정상회의(APCS),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참가 및 적극적인 지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정례모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우리시는 자매도시 정상회의에 앞서 멕시코의 메리다시, 인도의 콜카타시 등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갖추었다. 이로써 우리시의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총 13개 도시로 늘어났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2009 국제항공연맹총회 유치

우리시가 2009년에 열리는 제103차 국제항공연맹총회(Fédération Aéronautique International General Conference)를 유치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13일 그리스 로데스에서 열린 제101차 FAI총회에서 전체 330표 가운데 206표를 얻어 총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됐다. FAI는 130개 회원국과 항공스포츠 및 항공기술 부문에 15개 산하기관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항공기구. 시는 지난 9월 국제항공연맹(FAI)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FAI 임원진과 회장단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총회 유치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09 인천방문의 해와 연계해 우리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2

## DHL 동북아 특송센터 착공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세계 최대의 특송 업체인 DHL의 동북아 특송센터(DHL Express Incheon Hub)가 세워진다. 지난 10월 23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DHL 특송센터의 착공식이 있었다. 착공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단 맥휴이(Dan Mchugh) DHL 아시아태평양 CEO,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 최고의 물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DHL의 동북아 특송센터가 세워지면, 우리시가 동북아와 유럽, 미주를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3

## 열린 시정 실현 위한 홍보 워크숍

우리시는 9월 말부터 200명의 홍보전담 요원을 기관(부서)별로 지정해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홍보요원들의 능력을 키우고자 지난 10월 9일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시정 홍보 전담요원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실·과 팀장 및 실무자 168명과 군·구 문화공보과장 및 팀장 20명, 공사·공단 본부장 및 팀장 12명 등 총 200명의 홍보전담요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일희 공보관과 현직기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이 효과적인 언론보도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문의 | 시 공보관실 ☎ 440-2043



## 전국체육대회, 인천 중위권 도약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시가 종합 8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도약했다.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우리시는 복싱(1위), 핸드볼·하키·카누(이상 2위), 육상(트랙)·배드민턴·씨름·인라인롤러(이상 3위) 등에서 선전하며, 지난해보다 4천여점이 오른 1만5천580점으로 대회 3년 만에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한편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나근형 시교육감 등은 체전이 열리기 전 결단식을 통해 우리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073



## 영종공항도시에 보석타운 건설

우리시가 영종공항도시에 보석타운을 조성해 귀금속·보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시는 영종 복합물류단지 392만7천㎡ 가운데 8만2천600㎡ 규모의 보석타운을 세우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석타운 내에는 판매와 전시시설, 귀금속 가공과 관련된 아파트형 공장, 중사자 숙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계획대로 보석타운이 조성되면, 귀금속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 업체를 유치하고, 귀금속·보석과 연결되는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2014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 창립총회



장은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사무총장에는 배중신 전(前) 문화부 차관이 선임됐다. 또 조직위 부위원장에는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등 6명이 선출됐다. 조직위는 이번 창립총회에 이어 올해 안에 문화부장관 허가와 법 인등기를 마치고 100명 규모의 사무처를 발족해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 440-2014

##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유치

2008년 우리시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월 5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07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08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의 인천 유치가 확정됐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유공지도자를 포상하고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마련된 대회다. 2008년 열리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약 7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22

## 인천 저가항공사 내년 출범

내년 초 우리시에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권역을 운항하는 저가항공사가 출범할 계획이다.

우리시가 최근 인천항공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인천관광공사와 외국 항공사 3곳, 국내 은행 1곳 등 5개 업체가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우리시는 이들 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투자업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갖추어 내년 1월 즈음 저가항공사를 설립하고 정부에 정기항공운송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5

## 세계 한인정치인 국제명예고문 위촉



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시의 현안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5

### 父子 보호시설 아담채 개관

우리시 남동구 수산동에 전국 최초의 부자 보호시설인 아담채가 문을 열었다. 우리시가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아담채는,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9일 개관식을 가졌다. 아담채는 지상 4층 연면적 1천389㎡의 규모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공간 20개실을 갖추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부자가족이 3년 동안 입주(연장 2년)할 수 있으며, 총 20세대 60명의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6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 아담채 ☎ 453-5863



### 송도 업무단지에 운하의 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월 13일 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에 가칭 운하의 거리(Canal Street)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운하의 거리는 인공수로와 쇼핑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거리로 송도 1공구 D 1·2·3·4·5 블록에 길이 1km, 면적 5만1천522㎡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2천700여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09 인천도시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인 2009년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NSIC, 포스코는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각각 맡고 경제청은 사업 일정과 디자인을 협의하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 MOU 체결



진용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유치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008 베이징 국제회의에 참가해 세계 30여국에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홍보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부시장 및 몽골 도로교통관광장관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베트남 네안성 판딘작(Phan Dinh Trac) 주석은 지난 10월 4일 시청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박창규 시의회의장과 김

문의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

### 동남아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우리시는 지난 10월 23일 동남아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동남아 공무원 인천인(Incheoner) 양성 연수’의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연수에 참가 중인 동남아 공무원 4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마얀마, 인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과장급 공무원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시의 선진행정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체험하고, 향후 도시간의 상호협력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3

### 송도, 친환경 비즈니스도시 만든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게일 인터네셔널은 지난 10월 18일 송도에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 한진그룹과 함께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친환경도시로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TC는 미국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42위 기업이다. 이에 따라 UTC와 한진그룹, 인하대학교는 송도에 들어설 예정인 게일 인터내셔널/U-Life 아태지역본사와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인천항, 국내 최대 화물차 휴게소 준공



인천항 남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가 완공,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0월 12일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의회의장 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의 준공식이 있었다. 인천항 휴게소는 우리시와 컨테이너부두공단, SK가 합작투자한 것으로, 화물차 380여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주차장을 비롯해 차량 관리시설, 비즈니스 시설 등을 갖추었다. 화물차 휴게소 건설로 운전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44

### 도시엑스포에 200개 세계도시 재현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 200여개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주 행사장인 송도동 32-5일원 50만㎡에 세계 주요도시의 모형을 세운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홍보관을 통해 중국 베이징의 골목길과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 호주 시드니의 해변가 등이 재현된다. 한편 조직위는 11월 13일 엑스포 주행사장에 대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한다. 엑스포 부대 행사장인 컨벤션센터와 U-City 체류관, 중앙공원과 박물관 기념관 등은 이미 착공됐다.

문의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

### 2009 워터 코리아 행사 유치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 분야의 최대 행사인 ‘워터 코리아(Water Korea) 행사’를 2009년 10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2009 워터 코리아 행사에는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세계 10대 물기업 초청 포럼 등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체육대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주행사인 국제상하수도 전시회에는 국내외 300개 기업과 30만명의 바이어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터 코리아 행사는 2002년 대구에서 2007년 경기도 일산에서 열렸으며, 2008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720-2124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차관 예방



설현장을 둘러보고 인천 건설업체들의 몽골 진출여부를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과 강후 건설도시개발부 차관은 두 도시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인천 업체가 몽골 전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2

### 2007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2007 인천국제디자인페어’가 열렸다.

2007 인천국제디자인페어에는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전국고등학생디자인공모전, 월드베스트디자인&디자인소재전, 시 지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 결과물전 등이 전시됐다. 이중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은 522개의 응모작 가운데 총 161개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영예의 대상은 중국의 첸팅(Chen Ting) 씨가 차지했다. 디자인페어에는 전시 외에도 국제디자인세미나와 시민들이 디자인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세계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통해 인천의 디자인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 440-2824

### :: 교육청 소식 ::

### 인천기계공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육성기관단체표창 수상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기능실력이 한국 최고의 수준임이 입증됐다.

인천기계공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충남 천안 등 4개 도시에서 열린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50개 직종 1천79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우리시는 34개 직종 100명의 선수가 참

가했으며 인천기계공고는 이중 9개 직종에 1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그 결과 메카트로닉스에서 양광현, 이성범(3학년) 선수팀, 자동차정비에서 김용찬(3학년) 선수, 프레스금형분야 등 3개 직종에서 이영호(3학년) 선수가 금메달 3개 등을 수상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학생들은 내년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와의 선발전을 통해, 오는 2009년에 개최되는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 420-8225



## 제159회 임시회 조례안 63건 처리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15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63건(원안가결 53건, 수정가결 8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2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42건 조례안, 2007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08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권광역철도망 계획 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의 공동결안 등이다. 그리고 급곡동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 반대 및 민간개발 청원, 동춘동 화물터미널 설치반대 청원 등 2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의 현지시찰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GM대우 R&D 시설부지와 구(舊) 아쿠아리움 부지, RFID/USN 공유기반시설 구축 부지 등을 방문했다. 또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봤다.

### 인천대 송도이전 관련, 시의회의장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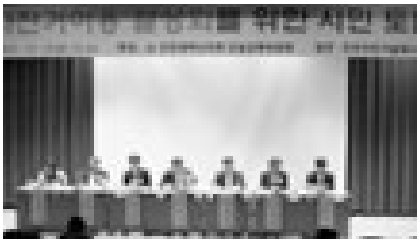


지난 10월 22일 박창규 시의회의장이 인천대 캠퍼스 부지 및 재산 관계, 법인화 문제 등과 관련해 인천대학교측과 면담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인천대학교교수협회의장을 비롯해 인천대학교총학생회장, 인천대학교총동문회장 등 인천대학교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시가 시립대학인 인천대를 송도

로 이전하는데 있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화 추진 중단, 안정적인 재정지원,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넘긴 대학의 수익성 재산과 발전기금 반환, 약 70만4천400㎡의 대학부지 확충 등 4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창규 의장은 면담을 통해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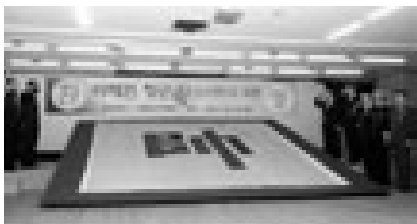
###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0월 2일 시의회 본회의장 및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회 인천시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인천 간재율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일기쓰기 권장 및 검사 실시안, 스쿨 존 차량 진입 금지법 건의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실제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의사일정과 같이 열린 토론의 장을 연출했다. 인천시의회 모의의회는 그동안 27개교 1천13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2개교 90여명의 학생이 모의의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의견수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범시민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의회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 서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바람직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의견은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자전거 관련 정책의 이해,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도로 실태 및 관리의 문제점 진단, 자전거 이용 진도시의 실태와 벤치마킹 등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어재연 장군기 고국으로 돌아와

신미양요 때 미국에 빼앗긴 조선군 지휘관 어재연 장군의 군기가 136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지난 10월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경재 국회의원, 유천호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어재연 장군기의 장기대여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를 위해 문교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어재연 장군기 반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바 있다.

###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 조정, 시흥시와 공동결의안 채택

지난 10월 15일 신안산선을 수인선과 연계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을 조정하는 인천시의회-시흥시의회 간의 공동 결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신안산선을 ‘여의도~KTX 광명역~시흥시청역’ 구간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시흥시청역에서 수인선 월곶역과 연결해, 신안산선과 수인선을 연계하자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시흥시의회도 지난 10월 16일이 결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두 시의회는 향후 공동 결의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공동 유치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멕시코 메리다시와 경제교류 논의



지난 10월 15일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시가 우리시와의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희망해, 향후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3일 율리시스 박 리 메리다시 한인회장과 새뮤얼 박 리 유카탄주 주지사 대변인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초청으로 시의회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메리다시를 비롯해 유카탄주 전역에 인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인천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는 등 두 도시의 협력관계가 공고히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멕시코 방문단과 올해 안으로 멕시코 내의 한인 3·4에게 2천만원 상당의 교육용품을 전달하는 등의 ‘한글교육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 440-6052

##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김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최근 인천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전의 10년이 지금의 1년’이라는 속설이 있다 하더라도 인천에 이는 변화의 속도는 가히 놀랍다. 송도의 거대한 변화, 아시안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아시안게임 유치,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속도감을 느낀다. 오른 집값, 송도 신도시의 대변혁에 이어 인구350만 시대를 예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쉽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인천은 그렇지 뭐...” 하는 패배감이다. 이것의 감염 속도 또한 지속적이다. 변화하는 마당 한가운데 변하지 않는 ‘의식의 열패감’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민의식 구성구석을 지배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의 정체성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대변혁은 화려한 겉모습에 불과하다.

인천인 스스로 인천을 폄훼하는 이른바 ‘자학의 증후군’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놀랍다. 지역 여론의 선도층, 지식인 그룹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천을 논할 때 마다 70%가 외지인이고, 서울과 가깝고, 그래서 애항심이 없다는 등의 통계자료가 등장한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문화, 환경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되돌아보자. 인천에 시립미술관이 없다, 근사한 오페라 하우스가 없다, 가볼 것이 없다 등등 ‘무엇 무엇이 없다’고 되풀이하는 수많은 언설이 누구의 입에서 누구에 의해 생산되고 유포되어 왔는가? 바로 필자와 같은 여론 주도층인 것에 스스로 놀랍고 부끄럽다. 인천 시민이 애항심이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서울과 가깝고 집값이 싸서 인천으로 이주한 서울 직장인들을 탓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인가도에 바리케이드를 쳐야 하는 것인가.

이제 ‘없다’에서 ‘있다’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에 무엇이 없다’는 사고에서 그래도 ‘인천에 이것이 있다’는 식의 긍정적 사고를 갖고, 그 바탕 위에 희망의 두레박을 과감히 던져 보자. 애항심이 없다고, 인천을 저 전남, 광주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정서적 성장통을 한 꺼풀 벗겨내자. 외국투자자들이, 외국기업이 아무리 물려와도 인천의 발전은 나의, 인천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화려한 진열장이자 출발지인 인천을 사랑하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 또한 사랑할 수가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愛己愛他)를 떠올려 본다. 조선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도산은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한 분이셨다. 지금 도산의 정신이 우리를 일깨운다.



# 코펜하겐, 리스본 제치고 유치 성공



글 · 백은기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장

제103년차 국제항공연맹 총회가 2009년 10월 우리시에서 열린다.

국제항공연맹(FAI, Fédération Aéronautique Internationale)의 한국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와 우리시, 인천관광공사 등이 공동으로 유치단을 구성해 그리스 로데스에서 열린 제101년차 총회에 참석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끝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투표결과는 우리시가 총 330표 중 62.4%인 206표를 얻어 경쟁도시인 포르투갈의 리스본(87표)과 덴마크의 코펜하겐(37표)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총회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기간 중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항공스포츠 관련 세계기록 보유자와 전 세계의 우주비행사 등이 참가해 엑스포 행사 가운데 가장 특색있는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연맹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항공 대표기구로 1905년 설립되어 현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130개국 가맹되어 있으며, 1945년 국제항공운수협회(IATA)가 분리·독립하였으나 정치와 인종을 뛰어넘어 인류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는 국제 협력체제를 돈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항공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적 항공활동의 세계 유일한 대표기관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제항공연맹은 그 산하의 항공스포츠 부문에서 모험항공부터 우주비행까지 11개의 기관과 항공기술 부문에서 항공우주교육, 항공의료생리, 항공환경, 아마추어제작항공기 등 4개 기관을 포함해 총 15개의 전문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국제항공연맹은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매우 보수적인 단체이다. 비행 자체가 고급 놀이문화임을 입증하듯 유럽 왕국의 왕자와 귀족, 항공사 대표, 공군장성, 대학교수 등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고급 사교장이기도 하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별도로 항공 관련 상담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참가자들이 고급 자가용제트비행기와 호화요트를 몰고와 부를 과시하기도 한다. 이들의 행차가 인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기대된다.

한국은 1957년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하여 건국 이래 최초 여류비행사로 잘 알려진 대한항공회 김경오총재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부총재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시와 인천관광공사, 대한민국항공회는 2009년 제103차 국제항공연맹총회 유치 성공을 계기로 국내 항공스포츠 및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에 인천에어쇼 운영과 항공우주파크 조성, 아시아-오세아니아항공스포츠본부 유치 등 다양한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구상들은 국내 항공레저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발전과 자가용비행기시대 개막으로 이어져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시로 집중되고 있는 전세계의 관심을 경제자유구역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천방문의해 등과 연계함으로써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 관광객 증대 등 막대한 효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 클릭하면 인천이 보인다



일일 인터넷방송 '인천투데이'가 지난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인천의 소식을 더 가까이, 정확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원활히 진행하느라 쉴 새가 없다.

우리시는 지난해 7월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해 '네트워크 인천', 'Fly 인천' 등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인천투데이의 방송을 시작했다. 인천투데이는 인터넷·영상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뉴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정뉴스 3건과 단신 3건을 6분 분량으로 방송한다.

인천투데이는 일일 뉴스의 특성을 살려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시의 주요 행사를 소개하면서 담당자 인터뷰를 함께 실어 현장감을 생생하게 살렸

다. 여기에 다른 뉴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지역정보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일 방송 이후 인터넷뉴스 시청자가 다섯 배 이상 증가되었을 정도다.

또 인천투데이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관심뉴스를 주간 단위로 모아 아나운서 멘트와 인터뷰 내용 등을 영어자막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비와 전문인원 등 방송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제, 매일 만나는 인터넷방송 인천투데이를 통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의 발전상을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인천투데이를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길 바란다. 🐦

## 인천투데이는 언제, 어디서 보나요?



인천투데이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와 시 인터넷 방송국 (<http://tv.incheon.go.kr>)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분 분량으로 방송한다.





# 또 다른 우리, 인천서 어울 더울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커다란 눈, 유난히 희거나 검은 피부의 외국인을 이제는 거리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4만1천100명이다. 같은 시기 우리시의 총인구는 268만6천22명으로 조사돼 총인구의 1.5%에 달한다.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동북아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는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제2의 고향 삼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인천 사람이 되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외국인 Portal Service

### 국제교류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구월동에 자리잡은 국제교류센터에 지난 6월 16일 등지를 틀었다. 센터는 생활전반에 걸쳐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 법률 · 의료 · 출입국 · 한국어

강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센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수행해서 통역서비스를 하는 등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친절히 도와준다. 또한 외국인들이 인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마련한다. 유학생 한국전통문화체험과 원어민교사 팸투어,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봄날 한마당, 이주여성 경제강좌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문의 ☎ 457-1803

### 여성복지관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우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다.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결혼을 통해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남편의 나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여성결혼이민자 30명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갖는 등 한국생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 익히기, 내고장 바로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이기에 가족상담 및 치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한글수업을 통해 ‘문맹’을 깨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음식 만들기, 컴퓨터 교육 등으로 문화 시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 소모임, 가족캠ป์를 열어 서로를 이해해 ‘가화만사성’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센터의 큰 역할이다. 문의 ☎ 440-6545

### 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센터팀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 외국투자기업과 그 종사자,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관리를 한다. 경제청은 전략팀을 구성해 이들이 살고,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되면 될 수록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기업과 투자자들이 살게 될 것이므로 거기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데 간혹 주택이나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점차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고 있다. 문의 ☎ 453-7171~3



1, 2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원어민교사 팸투어와 이주여성경제강좌

## 외국인생활 가이드

###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한 길잡이

낮선 곳으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고, 안내책자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웬지 든든하다. 외국살이도 마찬가지일 터. 우리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인천에 살고 있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외국인생활가이드’ 홈페이지(http://guide.incheon.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시내교통 이용방법, 한국의 일반관습,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지식, 출산 · 교육 · 복지제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내용을 책으로도 발간해 외국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각 한글과 같이 수록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은 우리시와 외국인지원 사회단체를 통해 배포돼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동남아권 언어로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문의 ☎ 440-2845



2007 인천아시안 축제한마당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의 이주민 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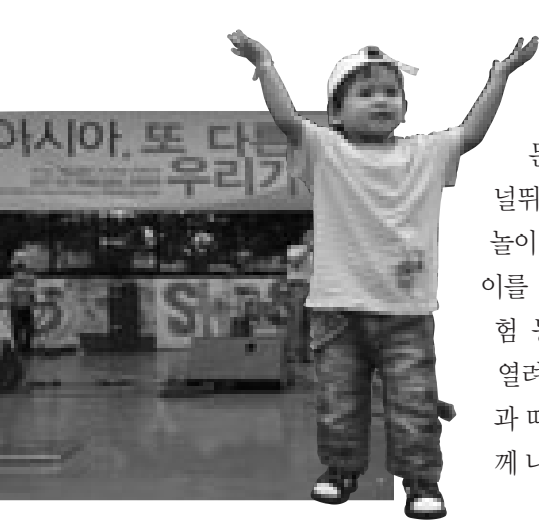
## 놀고 즐기고 이해하면서 하나된 우리

우리시와 여러 단체에서는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우리 문화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외국인과 인천시민들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인천아시안축제한마당

지난 3월 18일 삼산월드체육관은 여러 피부, 여러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다.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근무하는 1천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만끽하는 한바탕 축제가 '2007 인천아시안 축제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것.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 음악공연, 한국전통무용공연, 아시아 각국 전통무용 공연을 비롯해 국가별

패션쇼, 비보이 베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됐다. 한편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널뛰기, 제기차기, 대형 윷놀이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신나는 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우리민족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한편 지난 10월 7일(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In-joy Asia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을 지원하던 시민단체와 관계기관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네팔 등 여러 나라의 생활문화와 소품, 전통의상, 악기, 놀이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 체험한마당, 이주노동자 사진·미술전시회 등으로 마련된 전시한마당, 한국문화 체험한마당, 아시아 공연한마당, 이주민노래자랑, 아시아음식 맛보기, 해나문신하기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준비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이주민 노래자랑의 사회를 맡은 마모(남·28세·서구 가좌동)씨는 가좌동의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 한국에 온 지 이미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다 성격도 밝아 MC로 낙점됐다. “여기서 더 놀고 싶은데,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힘들어요. 오늘 저녁에도 야근을 해서 가 봐야 돼요.”라는 그의 말속에 이주민 노동자들의 현실이 담겨있는 듯하다. 비록 짧은 기간 어우러지는 축제였지만 아시아 이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어울려 한바탕 신나게 놀다가는 놀이터가 됐다.

### 외국인노동자 위안의 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위안의 밤' 행사를 열었다. 월미도를 떠나 영종대교, 무의도, 인천갑문, 팔미도, 송도신도시로 이어지는 인천 앞바다를 돌아 나오는 유람선을 이번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차지했다.

이날 유람선에 승선한 사람은 우리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 근로자 233명과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자 및 임직원 등이었다. 유람선이 운항하는 동안 선상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선발한 모범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시상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외국 무용단 공연, 중국 기예단, 마술, 라이브밴드 등을 감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홍보해 아시아인이 하나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외국인 진료

염 씨처럼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한 지 90일이 지났거나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인천기독병원, 한림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외국인 무료진료를 시행한다. 입원진료와 당일 외래수술에 한해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초과 사유서가 있을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만 무료진료가 가능했는데 두 병원에서 262명의 외국인이 6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무료진료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들이 무료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예산이 모두 소진돼 무료진료는 잠깐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시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 외국인 무료진료가 계속될 예정이다. 🐦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53-7171~3

### 인천의 외국인

#### 남자는 취업, 여자는 결혼

지난 6월말 현재 우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4만1천100명이다. 남자가 2만7천246명, 여자가 1만3천854명으로 남자가 2배가량 많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남성 외국인은 제조업, 연수취업 등을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1만2천602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한다. 제조업에 취업연수생 등이 많이 일하고 있는 결과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방문이나 거주를 위한 경우가 5천253명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최근 들어 해마다 20% 이상씩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했고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기도 매해 전국적으로 4천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우리 인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Fishing the Hidden Secret of Incheon



Person on the Street : Hello,

Visitor : Yes, Good day to you sir. How are you today?

Person on the street : I have just retired, so I am feeling great.  
How are you?

Visitor : Bored... My travel agent made a mistake so I will be here for four more days.

Person on the street : I understand, where are you from?

Visitor : I'm from Canada.

Person on the street : What do you do for fun in Canada?

Visitor : I fish as often as I can.

Person on the street : Really, If you want the people at the Tourist Information can connect you with a day fishing trip. There is great fishing at Daechong Island. And if you can't catch any fish, there are some beautiful beaches close by.

Visitor : Fishing, huh... that sounds like a beautiful idea.

Person on the street : If you want, you can follow me to a Tourist Information Center, I will be walking very close to one.

Visitor : Thanks, let's go!!

행 인 : 안녕하세요?

관광객 : 네, 좋은 날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행 인 : 저는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관광객 : 지루해요. 여행사에서 실수를 해서 이곳에 4일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행 인 : 아, 그러시군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관광객 : 캐나다입니다.

행 인 : 캐나다에서는 무엇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나요?

관광객 : 낚시하러 자주갑니다.

행 인 : 정말요? 관광안내소에 1일 낚시여행을 원한다고 말하면, 대청도의 좋은 낚시터를 연결해 줄 겁니다. 만약 고기가 안 잡히더라도 가까이에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관광객 : 낚시라, 흠...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행 인 : 만약 낚시를 하고 싶다면 관광안내소로 안내해드리지요. 관광안내소 근처까지 함께 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 감사합니다. 가지요.



글 · Renny Hanson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강사

# 예의바른 손님으로 살다 가기

글 · 하석용 유네스코인천광역시협회 회장



세상을 살아가는 날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말과 인식의 무기력함에 눈을 뜬다.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다듬고 다듬어 봐도, 항상 내가 아는 것은 실체의 부스러기일 뿐이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오감, 또는 육감이 별것이 아니고 쌓아온 논리와 통찰이란 것이 도무지 믿음직하질 못하다는 생각에 실망만이 쌓인다.

나는 솔직히 '꽃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0'이라는 수의 의미와 '∞'라는 부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무리수가 갖는 철학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종교의 수행자들이 찾는다는 '참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하물며 '신'을 자유롭게 일컫는 이들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나는 오늘도 그럭저럭 큰 문제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한 평생 살고 가는데 그렇게 많은 깨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거나, 피차 어울려 사는 이웃들도 사정이 모두 비슷한 덕이지 싶다.

길을 걷다가 얻어듣는 '말씀'들 중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라'는 가르침이 있다. 주인이란 모름지기 어떤 사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이거나, 크고 작은 세상의 움직임을 제도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아무 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이 없고, 무얼 가지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니 사물의 소유주가 되라는 말은 아닐 터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중심이 되란 깨우침일 것이다. 거기 없어서 책임질 줄 아는 인간으로 살라는 경구이기도 할 법하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 자가 어찌 무슨 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게다가 짝막한 토막 시간을 살다 가는 인간이, 두고두고 사단이 될 일을 주인이랍시고 휘저어 놓고 간다면, 그 뒤에 올 이들의 난감함은 어찌할 것이며, 한 물건에 주인이 많으면 다투게 마련인 것이니 아무래도 이 가르침은 미욱한 구석이 많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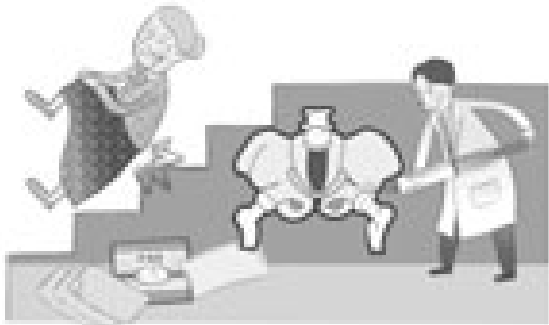
하마도 천지는 그 스스로가 주인이고, 세상은 역사와 현상 자체가 주인일 터, 아무것도 모른 채 잠시 들렀다 가는 존재는 아무래도 손님이란 편이 낫겠다. 손님도 예의바른 손님이라면, 주인과 어울려 즐거울 수 있고, 손님들끼리 편안함을 함께 할 수도 있는 법, 굳이 주인 되기를 주장하여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세상 모든 어지러움이 주인 되려는 주장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찌 하든 괜찮은 손님으로 살다 갈까'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깊어가는 가을, 맘 없는 하늘을 우러르며 집어 드는 화두다. ♪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The Same and Not The Same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n)

내게는 곁에 두고 따로 떠받드는 좌우명이란 것이 없다. 말은 어떠한 금과옥조(金科玉條)라도 쓰는 때와 상황에 따라 새김이 다르게 마련이고, 저마다 하나의 말에 삶을 묶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웅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다. 때와 경우에 따라 좋은 말과 글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굳이 고르기를 강요한다면, 요즘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싶은 말 하나를 추천한다.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n)이라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의 저서 제목으로 'The Same and Not The Same(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이라는 말이다. '당신과 나는 같은 인간이다'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매운 고추를 잘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동위원소와 같이 세상은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같은 속에도 늘 다름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의바른 손님이 되려면 이것만큼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 귀찮아도 병원 찾아야 빨리 거동할 수 있어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 중에 ‘골다공증’이 있다. 골다공증 자체는 보통 증상이 없으나 노인 인구(65세에서 74세의 거동 가능 인구를 기준)의 25% 이상이 경험하는 낙상 사고와 맞물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노인들이 넘어지면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척추뼈, 손목, 엉덩이관절(고관절)의 손상이 가장 흔하다. 이중 엉덩이 관절 주위 골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엉덩이 관절은 골반뼈(무명골)와 허벅지뼈(대퇴골)의 머리로 이루어진 관절을 말한다. 낙상 사고가 생기면 두 개의 뼈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엉덩이 관절 주위의 뼈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걷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의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두 개의 뼈 중 골반뼈 골절의 경우 골절 정도가 심하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 6주에서 2달 이상 침상 안정만으로 치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벅지뼈 골절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골절의 심한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된다.

대퇴골 경부 골절의 경우 젊은 사람도 합병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뼈가 잘 붙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뼈의 목을 타고 뼈의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골절 시 손상을 받아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이 죽어 버리는 ‘무혈성 괴사’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노인들은 이러한 합병증에 더욱 취약하다. 노인의 대퇴골 경부 골절의 경우 상당수에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뼈가 부러져서 많이 어긋난 경우 대부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것이다. 뼈가 많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에서 언급한 합병

증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한 경우 드물지만 환자가 경미한 통증만을 느끼며 잘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전자간 골절의 경우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골절의 유합도 잘 되는 편이다. 따라서 이 골절의 경우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된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든 전자간 골절이든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다. 상당수의 보호자들이 ‘환자가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위험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인은 통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거동을 못한다. 경부 골절의 경우 뼈가 잘 붙지 않으므로 통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면 노인에게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몸의 여러 군데 욕창이 발생하는가 하면 폐렴 혹은 요로 감염 등의 염증이 발생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현대의 의학으로는 아직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목표를 ‘유병장수’로 바꾸면 어떨까? 나이가 들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교육과 예방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각종 질환들을 잘 관리해 병과 더불어 오래 살 수 있다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글 · 김용래 인천광역시의료원 정형외과 2과장

## 가을 들녘에서

오랜만에 시골 외갓집에 가서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진짜 제대로 된 농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가을이라 메뚜기도 잡고, 밤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말로만 들던 자연산 송이도 실컷 먹고 즐거운 며칠을 보내고 집에오니 아이들이 또 가자고 하네요. ‘내년에 꼭 가자’ 약속!

김정옥 | 부평구 부평1동



추천  
장원

## 날아라 스카이콩콩

강화도 가던 길에 어느 식당에 들렀는데 어렸을 적 탔던 스카이 콩콩이 있었답니다. 신랑은 장난감이나 놀이기구가 귀하던 시절 농촌에 흔하던 삼으로 콩콩이를 대신해서 탔다며 어린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탔습니다. 그날 그 식당 앞마당은 말 안해도 아시겠죠?

우정숙 | 서구 마전동

## 김치~찰락



## 푹푹 숨어라~

아빠랑 엄마가 잠시 다른 곳에 가신 사이 사슴 뒤에 숨었어요. 사슴박제가 너무 예뻐서 공원에서 한참 놀다간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여기에 있어요~”

오영미 | 서구 가좌4동



## 우리도 태워주세요~

수봉공원으로 가을 소풍 온 꼬마녀석들이 너무 예뻐요? 돌아가는 거북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듯하네요.

권순우 | 중구 북성동1가

## 나보다 큰 빵 먹어 봤어요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로 선익, 인이, 승민이가 멋진 의상을 입고 할로윈 축제에 갔어요. 교실 한곳에서 아주 커다랗고 맛있게 생긴 빵을 발견했어요. 모두들 한입에 꿀~꺽

장선익 | 서구 가정동



## 시골처럼 보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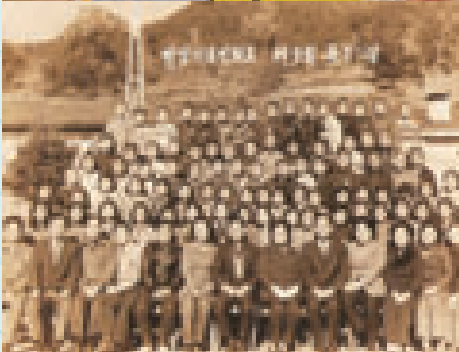
여긴 부모님댁 옥상입니다. 심는 걸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만든 곳이지요. 토마토, 깻잎, 부추, 치커리 등 계절에 따라 심으셔서 여름 내내 채소를 사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며 의사 위에 손자를 모델삼아 사진을 찍으셨네요.

홍혜진 | 남구 주안2동

## 나 찾아 봐~라

저희 어머니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30년도 훨씬 지난 사진 속의 저희 어머니지만 저랑 똑 닮아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역시 세월이 지나도 친구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안지 | 연수구 연수3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여럿 모여 소리쳐 최고가 된 작전여고 연극동아리 ‘악(악비)’



여름의 끝을 밀어내면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수봉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회관 소극장은 뽀뽀하고 싱그러운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다.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벌써 11회를 맞이한 인천청소년연극제에서 19개 고등학교 연극동아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무대에 올렸다. 올해 대상은 ‘산국’으로 참여한 작전여고가 차지했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황석영 원작 ‘산국’은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어 정미의병이 일어난 어느 하루에 피난길에 오른 양반집 마님과 그의 며느리가 뒤쳐진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시대극이라 무대장치, 인물의 심리와 성격 분석이 어려웠을 텐데도 큰 상을 받은 걸 보면 학교 지원도 넉넉하고,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전여고를 찾아갔다.

세수를 안 해도, 아무 옷이나 입어도 눈부신 10대 여고생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진지하게 응해주니 지성미까지 더 해서 그 아름다움은 더 돋보였다. 연극무대로 잠깐 외출을 해서 다른 인생을 살다 돌아온 아이들이어서 일까? 공부만 하는 아이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성숙해졌다고 할까?

작품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극중에서 소년역을 맡았던 이수아(2년) 양은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켜 온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다는 것을 이번 배역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말로 작

‘공부와 동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분명 힘이 든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지혜도 배운다.

품 속의 인물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연기자만 있어서 연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한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수아 양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흐뭇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도 철이 들어가는구나.

가장 기억나는 일로는 함께 무대 배경을 그렸던 일을 꼽았다. 연기자와 스태프 모두 합심해서 만든 작품이란다. 동인천까지 가서 재료를 구입해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무대 배경그림을 그리면서 고생했던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한 마디씩 했다. 처음에는 페인트가 묻을까봐 조심조심했지만 나중에는 얼굴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중하게 되더라. 작업이 끝나고 수세미로 뽀뽀 문질러서 벗겨내느라 고생했다는 말에도 즐거움이 배어 있다.

배우가 꿈인 박은비(1년) 양은 3학년 선배들이 연기자로 다 출연을 하는 바람에 이번 연극제에서 의상과 소품을 담당하는 스태프 일을 하게 되었다. 무대 위에 서는 감회를 물으니 “객석에 앉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뜻 깊다”고 답한다.

아이들은 동아리실이 없어 탁구실에서 연극연습을 했다. 열악한 조건에서 연습했는데도 얼굴에는 그늘이 없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 했다.

‘악(·)’은 王자에 口가 4개 들어있는 글자로 소리칠 악이다. ‘여럿이 모여 소리를 쳐서 최고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동아리 이름으로 지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그 이름값을 살렸다.

이번 수상은 대학에서 연기자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전형에서부터 도움이 된다. 한수지(3년) 양은 대상을 받게 된 것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무대를 만들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등장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악’ 동아리의 매력으로는 선후배 사이가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점을 꼽았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존재란다. 열심히 활동을 안 한 후배들도 선배들이 따



뜻하게 대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졸업 후에는 후배들을 공연에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질거라는 기대를 해 본다. 공부와 동아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갈등이 많았을 텐데도 교과서 공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체험을 아이들은 하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기 위해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찾게 되는 계기도 된다. ‘공부와 동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분명 힘이 들지만, 아이들은 그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지혜를 배운다.

아이들은 11월에 있을 두 번의 공연을 위해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예술의 전당에서 11월 26일에 열리는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산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소망해 본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교실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다. 책장 넘기는 소리, 필기하느라 부지런히 펜을 움직이는 소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고운 꿈이 피어나고 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색깔로 물들일 아름다운 꿈들이 있다. 그 꿈길을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밤은 소녀들의 모습처럼 아름답다. 🍁

# 아車車, 버스타고 가면 되겠네~

섬은 고독하다. 멀어서, 닿기 쉽지 않아서, 홀로 있어서... 낮설고 신비롭고 또 불편하게 느껴졌던 섬들은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지면 한층 가깝게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온다. 이렇게 다리는 사람을 잇고 희망을 잇는다. 게다가 그 섬을 오가는 버스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돼 차편걱정 없이 섬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여자는 갈대가 되고 남자는 바람이 되는 계절, 가을. 이 계절에 시내버스를 타고 섬을 찾아보자.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관광버스’로 여행하는 맛 영흥도행

**좌석 790번** 웅진군청-주안4거리-시청  
후문-남동구청-소래포구-월곶신도사-오이  
도역-방조제입구-조력발전소-방아머리-  
대부종고-선재도-영흥도-영흥화력발전소



영흥도로 떠나는 길. 9시 3분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시청 후문에 도착한 신백승여행사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6명의 승객이 이미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여행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버스답게 좌석 간격도 넓고 의자도 폭신해 여행하는 맛이 절로 난다. 만수동을 지난 버스는 건설교육원과 남동구청을 거쳐 어느새 소래포구 입구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는 소래포구의 운치 있는 다리와 빼적 소리를 낼 것만 같은 낡은 어선이 눈에 들어온다. 월곶을 달리던 버스는 이내 시흥에 접어들고, 곧 방아머리선착장을 지나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쪽 뻗은 영흥대교를 보무도 당당하게 건너 승객을 터미널에 내려놓는다.

10시 20분 영흥버스터미널. 그곳에는 인천서 건너온 버스를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버스 2대가 기다리고 있다. 섬 북쪽의 십리포 해변행 버스와 영흥화력발전소를 거쳐 장경리로 향하는 버스다. 790번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각자의 목적지에 따라 두 대의 버스에 나뉘어 오른다.

마을버스를 타고 닿은 십리포해변은 물이 저~만치 나가 있어 좀 실망감을 준다. 물 빠진 갯벌에 점점이 박혀있는 사



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열심히 동죽이랑 바지락을 캐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먹이를 인심 좋게 인간에게 양보한 갈매기들이 물 위를 낮게 날고 있다. 십리포는 잘 정돈된 해변, 깨끗한 식수대와 화장실, 그리고 해변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여기에 소풍 나온 여학생들의 재잘거림이 어우러져 청량감을 준다.

멀리 달아나있던 바다는 시나브로 해변으로 다가와 있다. 점점히 박혀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여장을 꾸러 물으로 나온다. 손에 손에 구멍이 숭숭 나있는 그물주머니와 호미가 들려있다. 언뜻 보기에 그물주머니는 제법 묵지해 보인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더니, 바닷가 수확도 쓸쓸한 모양이다.

이번엔 장경리로 향했다. 이 바다는 더 스산하다. 십리포엔 이미 물이 차올랐건만 이 바다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 다. 바닷가 뒤편에 나란히 줄지어 있는 소나무만 씩씩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군내버스에 몸을 싣고 터미널로 향하는 길. 운전은 하지 않은 덕분인지, 오랜 시간 바닷가에 머물렀건만 피곤한 줄을 모른다. 바닷가에서 감칠맛 나는 회 한점과 술 한 모금을 했던들 어찌리. 이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나면 어느새 내 집 앞일 것을.

- 운행간격 : 50분~1시간  
영흥방면첫차\_05:20 / 영흥방면막차\_21:20
- 요금 : 인천-영흥도 현금 2,500원 카드 2,100원
- Tip : 웅진군청에서 출발하는 1, 2, 3회차와, 영흥도에서 출발하는 12, 13, 14, 15회차만 영흥화력발전소까지 들어감.
- 이밖의 영흥도행 : 태화상운 ☎ 883-5113
- 문의 : 신백승여행사 ☎ 886-4747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 시내버스의 변신 용유도행

**좌석 111번** 동춘동-송도유원지-조개고개-인하대-법원,검찰청-문학경기장-신세계백화점-길병원-부평3거리역-부평역-부평구청-갈산주공1단지-계산역-공촌정수장-서부공단-인천공항여객터미널 3층2B-무의도입구-마시란해변-선녀바위-을왕해수욕장-왕산해수욕장

영종도 가는 111번 버스는 코스가 좀 길다. 송도를 출발해 인천터미널을 거쳐 부평, 갈산동, 계산동 그리고 서구 공촌동까지 가는 동안은 어느 시내버스와 다름아니다. 버스가 공항까지 가는 것을 아는 이들은 차에 오를 때 ‘시내요~’라고 말한다. 그래야 시내 좌석버스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 계산동을 지나면서부터는 ‘공항이요~’라고 말하는 이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

시내구석구석을 누비던 버스는 공항 가는 길로 접어들자 한적하기 그지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공항터미널에 도착했다. 3층 출국장에 승객을 내려놓은 버스는 길을 재촉해 영종도 옛 마을로 향한다. 공항 남측방조제 앞을 달린 버스는 어느새 무의도로 건너가는 잠진도선착장을 지나더니 을왕리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마시란, 선녀바위, 을왕리... 귀에 익은 이름의 이정표들을 차례차례 뒤로하고 버스는 왕산해변까지 내쳐 달릴 터이다.

늦가을, 찾는 이가 가장 많다는 을왕리에 내렸다. 피서철의 북적임은 어디로 숨었을까? 해변으로 향하는 길가의 냇

시용품점, 횃집, 편의점... 모두 한적하기 이를 데 없다. 버스정거장에 내려 5분을 걸어 들어가니 소나무 숲 사이로 멀리 도망간 바다가 눈앞에 다가선다. 누가 바다를 초록빛, 감청빛, 먹빛이라고 했는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가을 햇살을 받은 바다는 황금빛이다.

바다를 찾는 이들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다. 멀리 나가있는 바다를 맞으러 황금 햇살을 향해 나가는 이들, 모래사장을 학교 운동장인냥 내달리는 이들, 그리고 갈매기...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으니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온통 빈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황량한 바람이 스치며 지나간다.

다시 버스정거장으로 나왔다. 더 한적한 바다를 즐기려면 건너편에서 왕산으로 코스를 잡아 버스에 오르면 될 터이다. 하지만 이제 바다와 헤어져야할 시간. 승객을 기다리는 버스가 반갑다. 송도행? 인천역행? 잠시 갈등을 하다 버스에 몸을 싣는다. 코스를 거슬러 선녀바위, 마시란해변, 무의도와 눈인사를 나눈 후, 편안히 버스 의자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끼고 시원하게 내달리는 공항고속도로에서 바다와 서서히 작별 인사를 나눈다.

- 운행간격 : 7~10분  
공항방면첫차\_05:30 / 공항방면막차\_20:30
- 요금 : 인천-영종도 현금 4,100원 카드 3,900원
- Tip : 인천공항-을왕 · 왕산해수욕장 구간은 동춘동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인천공항에서 10시1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출발한 차량만 운행
- 이밖의 용유도행 : 좌석 302번(송내역-왕산해수욕장)  
좌석 306번(인천역-왕산해수욕장)
- 문의 : 강인여객 ☎ 578-1738

### 섬 주민들도 기분 좋~게 공짜로 갈아타세요

강화, 영종 · 용유, 영흥도 등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에는 시내버스가 다닌다. 섬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물에서 일을 보게 되는 섬주민들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버스환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간 환승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섬 지역의 좌석버스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1번 · 300번대(영종), 700번대(강화 · 영흥) 버스에서 간선 · 지선 ·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하차할 때 카드를 한번 더 단말기에 접근시키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요금이 무료이고 인천지하철은 기본운임의 50%가 할인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천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하차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섬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50% 할인, 시내버스는 무료다.

## 애잔한 역사를 만나러 가는 강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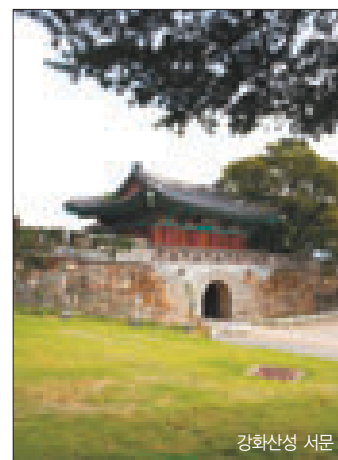
**좌석 700번** 인천터미널-길병원-동암역-가정5거리-서구청-백석태평아파트-검단파출소-초지진-온수리-강화터미널-강화서문



강화 가는 700번 버스는 정겹다. 버스에 오르는 이 중에는 예의 그 강화 사투리로 ‘온수리 갑니껴?’ 하며 차에 오른다. 버스 안 풍경도 이채롭다. 버스 손잡이에는 용도 불명의 검정색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다. 추측컨대 속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동암역, 가정5거리, 서구청을 지난 버스는 검암4거리와 검단파출소를 지나 초지대교 앞에 이른다. 드디어 강화 입성이다. 시원하게 뚫린 초지대교를 넘은 버스는 온수리, 불은면, 선원면을 거쳐 강화터미널, 강화군청 앞을 지나 강화서문 앞 한적한 공터에서 여정을 마감한다. 11시 50분 인천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라 강화 서문에 도착한 시간이 1시 45분이니 1시간 55분이 소요된 셈이다.

공터는 옛 정취가 그대로 드러나는 돌담을 벽 삼아 등지를 들고 있다. 강화산성의 돌담이다. 고려가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로 도읍을 옮기고 궁궐을 지을 때 쌓은 성곽 중 내성에 해당하는 것이 강화산성이다. 돌담의 세월을 말해주듯 담쟁이들이 성벽을 휘감아 돌아난다. 그 돌담 위를 올랐다. 서걱거리는 마른 잎새, 잔디처럼 낮게 깔린 이름모를 풀들. 돌담을 끼고 걷는 풍치가 제법 멋스럽다. 돌담 끝자락에 앉은 강화문예회관이 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으로는 강화산성 성문 중 하나인 서문이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오롯이 앉아있다.



강화산성 서문

산성을 내려오니 공터 반대편에도 너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그 잔디밭 한가운데 딱 하니 자리잡은 돌비석 하나. 이곳이 연무당옛터임을 알리는 비석이다.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가까이 가보면 옛 사진 몇점이 누렇게 변색돼 걸



강화향교

려있다. 1876년 당시의 연무당 전경과 병자수호조약체결 장면이 담겨있는 사진이다. 변색된 사진만큼 슬픈 역사가 가슴을 연다. 연무당옛터를 감싸고 있는 돌담 아래 세 개의 홍예문으로 작은 냇물이 흐른다. 강화산성 서쪽 성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동락천에 설치된 석수문(石水門)이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조차도 이곳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듯 애잔하게 들린다.

길을 건너 서문 앞에 선다. 서문은 강화산성의 남문, 북문, 동문 등 4개의 문 중 하나이다. 서문 앞에 서면 첨화루(瞻華樓)라 새겨있는 편액이 눈에 들어온다. 둥근 아치형의 문안으로 들어가 위를 올려다보면 호랑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채롭다.

서문을 뒤로하고 강화읍 쪽으로 향하면 강화향교를 만날 수 있다. 서문에서 10분여를 걸으니 향교길, 여교길이라는 예쁜 길 이름들이 눈에 들어온다. 강화향교는 강화여중 · 고안에 자리잡고 있다. 마침 향교는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향교 내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어 좀 어수선하다. 하지만 향교는 옛 모습 그대로 고색창연한 빛을 뽐내고 있다. 고려 인종 5년(1147)에 내가면 고천리에 창건된 것을 조선 영조 7년(1731) 이곳으로 옮겼다. 향교 왼편으로는 세월의 때를 입은 하마비(下馬碑)가 향교의 위엄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담장없는 박물관 강화는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요, 전통이다. 마음만 먹으면 서문을 거쳐 강화북문과 근처의 용흥궁, 고려궁지 등을 한 코스로 밟아볼 수 있을 터이다. 튼튼한 다리만 허락해준다면 말이다. 🍂

- 운행간격 : 25분~40분 / 강화방면첫차\_05:30 / 강화방면막차\_21:50
- 요금 : 인천-강화 현금 2,500원 카드 2,100원
- 이밖의 강화행 : 701번(인천터미널-화도면(마니산))
- 문의 : 선진버스 ☎ 933-6801, 934-9105



# 만삼이네 가면 '생태'가 보인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여름이면 냇가에서 송사리떼, 올챙이를 쫓아다니며 자연과 함께 뛰놀았던 어른들의 기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올챙이는 물론 도롱뇽이 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만월산 기슭에 자리잡은 만삼이네 도롱뇽마을이다.

만삼이네 도롱뇽마을은 남동구 만수3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가꾸고 있는 생태체험장이다. 양서류에 속하는 한국 특산종인 도롱뇽은 1급수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물이 맑지 않은 곳에서는 자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월산을 품고 있는 만수3동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생태계가 잘 보존된 덕분에 도롱뇽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착안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참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보조받아 만수3동만의 특화사업으로 도롱뇽마을을 꾸미기 시작했다.

사업은 4월부터 시작됐지만 한창 도롱뇽이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시기라 함부로 계곡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만수3동 주민센터는 먼저 화단을 가꾸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도롱뇽들은 주로 계곡에 터를 닦고 있어 등산로를 계곡 옆길로 우회시켜야 보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다리도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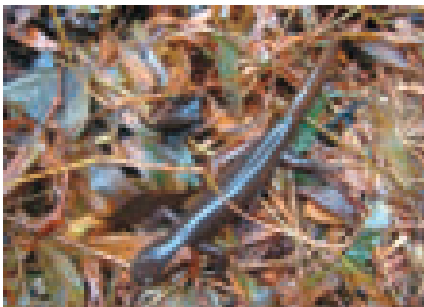
놓고, 나무 데크를 설치해 도롱뇽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꾸몄다. 만수3동의 새마을 부녀회, 통장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이곳을 찾아와 행여 무자비하게 도롱뇽 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덕분에 4월과 5월에는 계곡이 온통 도롱뇽 천지였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도롱뇽이 늘어난 것 같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 장현태 씨의 설명이다. 등산을 하러 만월산을 찾던 어른들은 어릴적 동네에서 보았던 도롱뇽이랑 개구리알을 발견하곤 아이들을 데리고 생태체험을 하러 이곳을 다시 찾았다.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들로 계곡이 뿔뿔이 찼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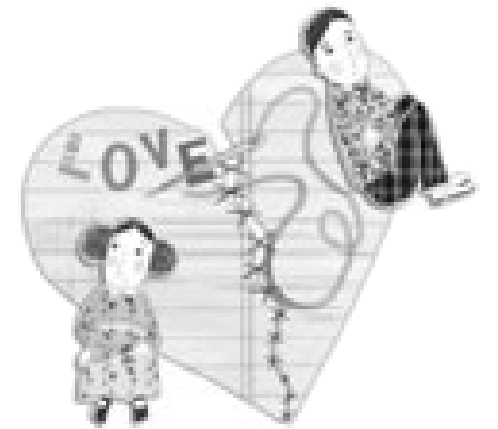
이윽고 가재도 살고, 다슬기도 같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터를 잡게 된 만삼이네 도롱뇽마을은 2007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도롱뇽이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친 9월부터 계곡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도롱뇽서식지 자연 생태 학습장 조성사업'은 마침내 단장을 끝내고 10월 말 준공식을 가졌다.

이제 곧 도롱뇽은 긴 겨울잠에 들어갈 것이다. 그 겨울동안 만삼이네 도롱뇽마을은 생태체험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단장에 들어간다. 새 봄 깨어날 도롱뇽들을 기다리며... 🐸



##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Q** 5년 동안 동거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저와는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A**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것 외에도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법은 '사실혼'이라는 이름 하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해 줍니다(그러한 보호의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시에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으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의 의사'나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내용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보통의 부부사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관계'를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는 '동거'에 불과하고 '사실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단 같이 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마음인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

므로 보통의 동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두 사람이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단순한 동거라면 두 사람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간통죄 역시 법률혼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사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면서도,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할할 공동재산도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만 받기에는 억울한 심정이 들어 하소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울한 마음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실혼도 되지 않는 동거의 경우라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긋난 관계라면, 쿨하게 상대방을 먼저 보내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벗어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한테는 내가 훨씬 아깝다'며 훌훌 털어버려야 남은 인생을 멋지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글 · 이상미 변호사 (로펌 로시스 ☎ 861-5511)





# 먼 구름 속 오원의 악보로 피꼬리가 교향(交響)을 한다

— 윤부현의 경인합승

글 · 김학균 시인

결 고운 시어(詩語)로 사랑을 노래한 시인의 얼굴을 촌음 간에도 기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동시집 속에서는 사랑이 일어나오고 시집속에서는 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에 아무 걸림돌이 없다.

1968년 11월 신포동의 저녁거리는 늘상 그렇게 북적거리며 바쁘다. 더군다나 극장(동방, 키네마)근처는 노점상들로 길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폭포수다방 내부는 밖의 사정과는 사뭇 다르게 조용, 적막하기까지 하다. 정면에 앉아 있는 40대 중반의 신사는 연신 책 속에 무언가 적어 넣기 분주하다. 이윽고 약속된 손선향 시인이 들어오자 그 신사는 “아우님, 어서 오게” 하며 호탕하게 문 쪽으로 웃음을 뿌렸다. 손

선생과 함께 서 있던 필자는 어정쩡하게 시선을 주고받았으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나 다름없었다.

“어, 학균아, 이리와” 선향 시인의 말에 합석하게 된 윤부현 시인과의 첫 대면은 이렇게 시작 되었으며 4번째 발간된 책 「바닷가 계들」이란 동시집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다방을 나온 두 시인은 허

름한 대포집이 아닌 일식집 ‘미조리’로 옮겨 인천을 떠난 이후의 생활 이야기 그리고 문인, 문단의 이야기로 거나하게 얼굴을 덥히고 있었다.

항시 문인 선생, 선배의 말석에서 잔심부름 아니면 말의 추임새 뜨기에 바쁜 시절의 새끼문인, 아니 문학지망생인 나로선 큰 대접이 아닐 수 없었다. 불혹을 넘긴 윤시인은 깔끔한 용모로 사물을 바라보는 직관력이 날카롭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다. 지금까지도 기억의 강을 더듬어보면 그 직관 속에 비창이 같이 존재하여 비애를 읽어 낼 수 있는 시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제 생각하니 시인 윤부현은 꽃과 여인 그리고 나무를, 아름다움 이전에 고통과 인내와 슬픔을 가진 詩의 대상으로 풀지 않았나 생각된다. 곧 꽃이 죽음이요 여인이 슬픔의 원조이며 나무는 인생의 표상이라고.

인천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교직(초등학교)에 입문, 외길을 걸어온 시인은 인천에서의 생활과 문단 활동이 다른 문인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아서 해적이గా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시인은 ‘최병구’ ‘박송’과 더불어 동인활동을 하며 ‘홍윤기’ ‘김양수’ ‘랑승만’ 등과 교류, 시 창작에 몰두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혼자하는

자기와의 싸움이겠지만 더욱이 서울로 출근했었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문인으로 언감생심 56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부에 「포폴러」로 당선, 문학입문 16년의 결실을 보았다. 27살 시인의 눈에 생생하게 각인된 6·25의 수난과 9·15 상륙작전을 보고 느꼈던 처절한 전쟁, 바로 그것이 시로 승화되어 6년 뒤 과목(果木)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생화」 「과수원」 「여인Ⅰ」 「여인Ⅱ」 등으로 첫 시집 ‘꽃과 여인과 과목’ (1965년 11월 1일 간행 삼화인쇄, 모음사 발행)에 수록되어 오늘에 이른다. 후로 교직생활에서 건져 올린 소박과 따스한 정감을 다시 어린이에게 주고자 동시집을 펴냈다. 동시집 ‘숲속의 별들’ 속 「숲속학교」는 곡을 붙여 몸담고 있던 ‘경희대 병설 초등학교’의 교가로 불려지고 있다.

1968년 10월 ‘바닷가 계들’ (배영사 간)이란 동시집을 상제 ‘소박하고 거칠면 거친 대로 정다움과 따스함이 넘치는 동시’ 라고 인원수 선생의 시평을 받은 바 있다. 83년 제2시집 ‘벚꽃만개’ (한국현대시 간)를 상제 후 86년 지병으로 타계한 혼류(시인의 호)는 꽃향기 버들바람에 실려 갔다. 경인합승은 우현의 「경인팔경」, 조병화의 「인생합승」과 같은 맥락에서 빚어낸 인천의 시다. 🌸



## 경인합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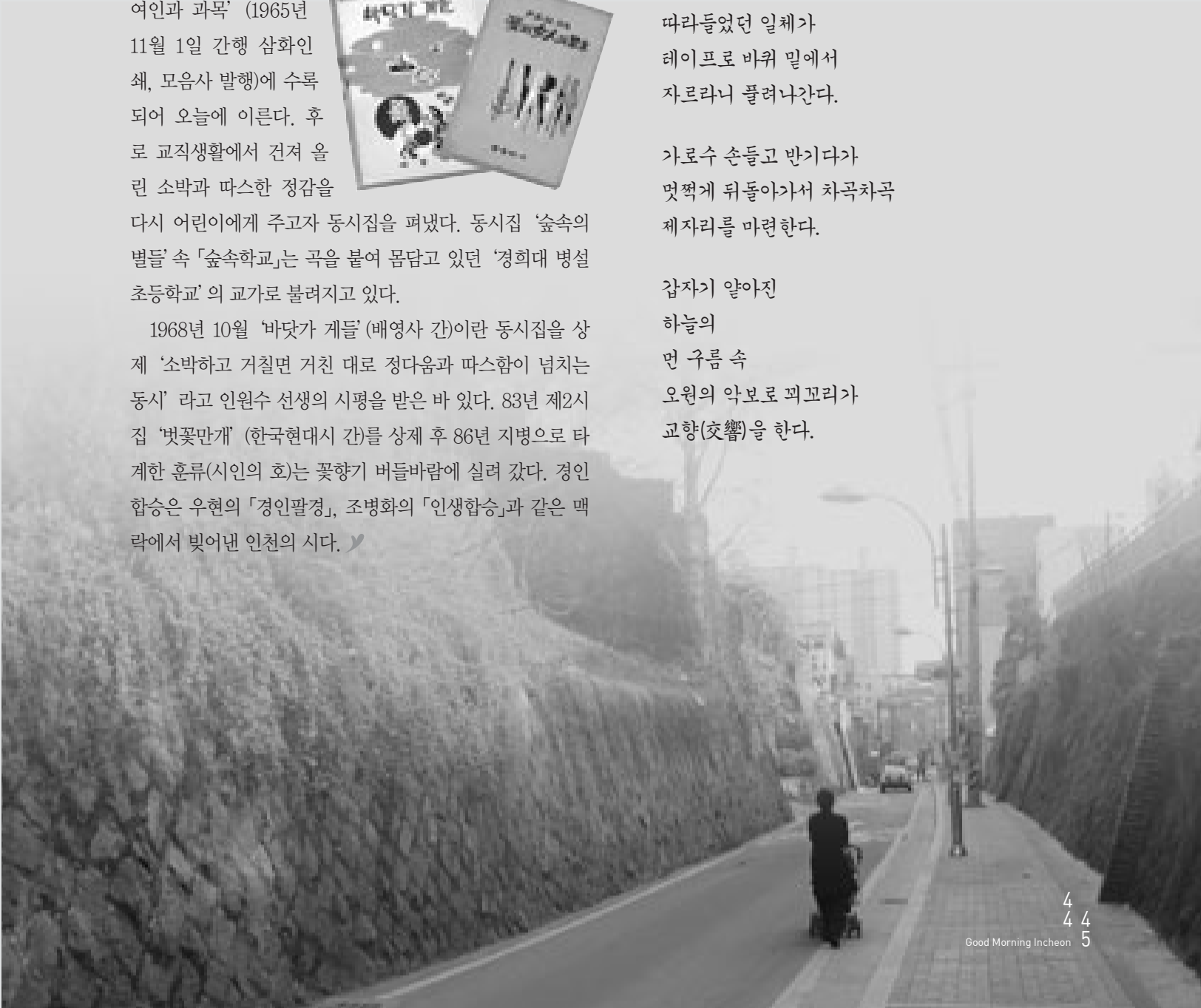
산이  
구름이  
오색에 부서진다.

언덕에서 박수 갈채소리가 들렸다.  
빠졌다 솟은 물매미가  
물 위에서 미끄러졌다.

따라들었던 일체가  
레이프로 바퀴 밑에서  
자르라니 풀려나간다.

가로수 손들고 반기다가  
멋쩍게 뒤돌아가서 차곡차곡  
제자리를 마련한다.

갑자기 알아진  
하늘의  
먼 구름 속  
오원의 악보로 피꼬리가  
교향(交響)을 한다.



국내 첫 국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jjebi@paran.com)



문화 발전의 척도인 박물관!  
오늘은 인천 박물관의 역사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은  
국내 첫 국립박물관이다.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인천 출신의 이경성 씨다.

인천에도  
박물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일본유학 도중 제2차 대전으로 1945년 귀국한 이경성 씨는 국립박물관장  
이던 김재운 박사와 경복궁 자경전에서 일을 하였고

이경성 씨의 뜻을 듣고 찾아온 미군정관 훔펠 중위의 제안으로

인천  
향토관을  
임대해  
박물관을  
만들어 보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1946년 중구 자유공원에 있던 세창양행 사택에 시립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아~  
감개무량하구나...

선생님,  
유물 좀  
부탁드릴게요.

허허~  
유물 19점을  
보내 주겠네.

27살의 젊은 나이에 관장이 된 이경성 씨는  
전시물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패전 후 우리의 문화재를 반출하려는 일본인들에게서 문화재를 거둬 들였고

남의 문화재를  
훔쳐 가려 하다니~!

아...  
아니입니다~

패전하기 전 일본이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찰에서 약탈해 모은  
불상과 종들을 다시 찾아 오는 등

이경성 관장의 노력으로 364점의 전시물  
을 모아 시립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와글  
와글

그러나 시립박물관은 6·25전쟁으로 휴관에  
들어갔고

인천 시립 박물관

관장과 관원들은 박물관 방공호에 3백여점의  
유물을 숨겨 보전하기도 하였다.

조심  
조심~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외중에 박물관이 전소되어 제물포 구락부로  
이전하였고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문화영화를 상영하는 등 척박한 인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좌르르르

이후 시립박물관은 1990년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을 하였다.

인천시립박물관은  
2006년 시설과  
전시유물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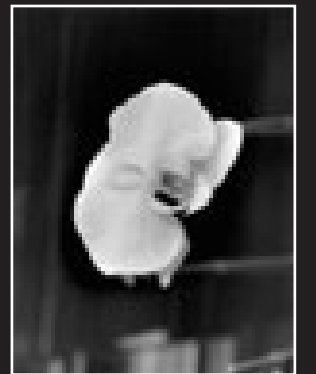
또, 외국 박물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러운 성격, 시원스러운 삶

## 최 . 순 . 자 (崔順子) 교수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옛날에는 생명공학이니 생명화학공학이니 하는 학과가 없었다. 공대라고 하면 그저 화공과, 기계과, 전기과, 건축과, 토목과, 섬유과 뭐 그런 정도의 학과들로만 구성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이쪽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생명을 공학의 한 분야로 다룬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순자 교수는 이쪽과 불과 몇 년 차이도 아닌 1971년도에 대학에 가면서 벌써 이런 종류의 신학문에 뜻을 두었었나 보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나노-마이크로 크기 정보 소재 및 제어 기술).’ 우리나라 여성공학자 1세대 최 교수가 몸담고 있는, 이런 전혀 생소한 첨단 학과나 학부에 대해 물어볼 지식도 없거니와 구닥다리 옛날 문과생이 물어본들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명함만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정도가 1나노미터라던가.

그래도 교양으로 꼭 읽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몇 년 전 불란서의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박사가 쓴 『우연과 필연』을 본 적은 있다. 발간되자마자 순식간에 수십만 부가 매진되어 대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이 책을 손에 넣고는 다른 시인, 작가들 중 과연 분자생물학자가 쓴 과학책이면서 철학책인 이 『우연과 필연』을 몇 사람이나 읽을 것인가 하는 교만에 젓기도 했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독파하지는 못했다. 억지로 읽으려니 재미도 없었고 용어들조차 여간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최순자 교수가 공부한, 그리고 지금도 연구하고 강의하는 분야가 생물학 쪽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런 미세한 영역이 아닐까. 전혀 엉뚱한 짐작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서 한편 머릿속은 남자와 여자를 겉의 성(性)으로만 구별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화학이니 공학이니 소리만 나오면 지레 주눅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따분하게 생각했던 남자와 이렇게 활기차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과학을 즐기며 강의를 하는 여성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친절하게 마실 것을 준비한다, 자리를 권한다 하면서 최 교수는 창밖의 가을 하늘 같은 맑고 여유로운 웃음을 보인다. 언뜻, 최근까지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고위 여성 정치가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땀거나 흐트러지거나, 또 조금이라도 자신을 내세우려는 모습, 혹은 들떠 있는 몸짓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와 사색의 삶은 이처럼 날카로우면서도 환하고 활발한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활달한 성격과 몸에 지닌 지성, 그리고 여성이면서도 느껴지는 위의(威儀) 같은 것이 오히려 신선하다. 그렇다. 흔히 학자들이 내보이는 잘 마름한 옥양목 같은 그 푹푹함은 아무리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키는 비교적 컸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지진이었어요. 말도 잘 못했구요.”

아, 그건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 아니, 그건 이런 과학자들이 걸어가는 정해진 길인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학생 때 수학에선가 낙제를 했다고 하지 않던가. 위대한 인물들은 늦되기 마련, 언제나 대기만성(大器晩成)인 것이다. 최 교수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차츰 능력이 발달되고 마침내 남보다 우수해져서 당시 푹푹한 학생들이 가던 인천여중과 인일여고를 졸업했던 것이다.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있을까. 여학교 시절에는 차분히 앉아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음은 철학 같은 학문을 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토록 따라붙던 가난이 최 교수를 일깨웠다. 기능인이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인이 되자면 이왕 여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이런 공학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만이 가난을 면하면서 또 한편 개척자로서의 명성도 얻는, 그것이 곧 성공의 첩경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난은 참으로 끔찍했다. 중국인의 부추발, 양배추발, 토마토발에 둘러싸인 지금 인하전문대 자리, 학익동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도 살아가는 일만큼이나 번두리였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부친이 사망하고, 또 위로 맺은 죽고, 살아남은 오빠 하나와 최 교수를 포함한 딸 넷의 생계를 홀어머니가 책임져야 했으니... 최 교수는 철학이 아닌 현실의 삶을 푹푹히 보면서, 오로지 공부만이 집안을 흥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대를 향해 발걸음을 땀 것이다. 그것이 인하공대 화공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뜻하지 않게 좌절을 맛보았다. 모 기업에 지원해 입사 시험을 보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이다. 여성 엔지니어는 뽑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줄에 서라’는 대답이었다. 그것은 곧 비서직이나 알아보라는 말이었다. 그 무렵만 해도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는 이렇게 제약과 장벽이 높았다. 엔지니어의 꿈을 접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은 그래서였다. 이렇게 화학 선생님 노릇 등 6년 반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 더 크고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모교에 돌아온 것은 1987년 9월 1일입니다.”

1985년 미국 LA 남가주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다. 학위 논문이 이쪽 같은 부류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고분자 재료의 특성 연구」.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립대 공대에서 1년 반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후였다. 보통 남들이 밟는 코스보다는 훨씬 늦었지만, 늦게나마 첨단 학문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재원(才媛)을 모교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최 교수를 문학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절연(絶緣) 창 안에서 타오르는 백열(白熱)을 바라보는 느낌이라면 맞을까. 은근하면서도 강(剛)한 인상과 수수한 듯하면서도 심지가 깊은 그런 이미지. 맞다. 아까 말한 옥양목, 그 흰 빛깔과 가는 올의 섬세함, 그 반면에 장부처럼 현현하고 시원한 느낌.

10월 22일이면 결혼 3주년이다. 유학 가던 해 돌아가신 오빠의 아이들, 그리고 5년 전 별세한 노모를 모시는 일이 결코 자신의 결혼을 막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일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로서 스스로 택한 것이다. 어린 시절 그토록 부러웠던 친구네의 밝고 윤택했던 ‘가정’의 모습을 자신이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붙잡아매어 두었던 것이다.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역올한 일인가. 청춘 시절 그 혼한 연애 한 번조차 스스로 억제했던 그런 인내와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상(地上)에서 가장 멋진 신사를 부군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를 만큼 이루어고 스스로 안온(安穩)을 누려도 좋을 즈음, 마침내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이다.

최 교수보다 네 살 위의 부군은 서울 문리대 화학과를 나왔다. 같은 과학, 같은 화학 분야여서 대화가 막힐 리 없는 것이다. 특히나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논문을 영역할 때는 더 할 수 없는 요긴한 ‘논문 동지’ 이기도 하다.

“소주요? 두 병 정도. 남편도 잘 하는 편이지요.”

이제는 즐길 만도 하다. 자신의 학문을 위해서 노모를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스스로 뒤로 밀어 두었던 행복을 맛볼 만도 하다. 어스름 저녁에 소주 한잔도 좋고, 어느 낚시터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읽는 행복도 좋고, 이빨 빠진 30대 영국인이 신인 선발대회에서 부른 「투란도트」를 다시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남편과 가끔 필드에 나가는 것도 건강하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가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하다. 20대 여성들이여,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쉽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그 결실과 보람은 분명 돋보일 것이고 백만 배 값질 것이다.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최순자 교수를 비롯해 서강대 장영희 교수, 화가 김점선 등 내로라하는 한국 여성 9명이 쓴 『스무 살이 되는 당신 여자에게』라는 책의 최 교수 편 「남자의 세계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의 마지막 구절이다. 대학 복도에 걸려 있는 ‘아모레 퍼시픽’ 여성과학자상 대상 수상 내용을 적은 액자가 바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 최 교수의 일생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



“

맞다. 아까 말한 옥양목,

그 흰 빛깔과 가는 올의 섬세함,

그 반면에 장부처럼 현현하고

시원한 느낌

”



## 책(冊)

책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종이로 엮은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에야 책, 신문, 잡지가 읽기 싫어 안읽지만, 없어 못읽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아실런지. 50~60년대 초등학교시절 선택교육 상급반으로 올라가려면 새학기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집안에 형 혹은 누나가 있으면 물려받았고, 운 좋게도 주위에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무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돈을 주고 샀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헌책방에서 책을 사 달력으로 곱게 싸서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 요즘처럼 책이나 책가방(책보)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 혹여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다보면 책보가 거의 같아 바뀌는 경우는 있었다. 또 운 좋게도 친구한테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빌려 밤늦게까지 등잔불 밑에서 읽노라면, 부모님께서 석유 램프는다고 불을 끄라며 성화였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교과공부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같다. 논술도 책의 힘이고 공부의 근원도 책이다. 버스나 전철, 장거리 열차 안, 대형서점 통로에 앉아 책을 읽는 젊은이들을 보면 모두가 아름답다. 나도 모 북클럽에 가입해 주기적으로 책을 사서 읽고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계절이 어디 있겠나 마는 천고마비(天高馬肥)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우리 모두 한 권씩만이라도 책을 읽어 미래의 자산을 충전하자.

이운영\_연수구 옥련동

##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려준 아드리안

‘방아깨비 아저씨.’ 내가 맨 처음 만난 동화이다. 네다섯 편의 단편 동화집으로 기억한다. 첫 여름방학 과제인 독후감을 쓰려고 책은 들었으나, 달팽이 걸음이었다. 끝내는 다 읽지 못했지만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개운치 않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여하튼 과제의 부담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어쩌면 일곱 살이었던 내가 독후감 쓰기가 두려워 어설픈 요령을 부린 건 아니었을까. 나는 책을 씩 좋아하지 않았다. 집에 책이 없어서 그랬다고 우기고 싶다. ‘방아깨비 아저씨’에 나오는 육손이의 마지막 손가락처럼 책은 내게 불필요했다. 그러나 끝 부분에 육손이가 새끼손가락 다음에 생긴 흉물스러운 손가락을 아기 손가락으로 바라보듯 내 삶의 끝에는 책이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 짐작한다. 독후감도 그렇지만 일기만큼 고달픈 숙제가 없었다. 매일매일 늦은 밤이며 치러야 하는 고문! 비슷비슷한 일상을 나열하던 나의 일기는 가끔씩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도배당해야 했다. 이러한 나의 일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책이 타운젠드의 ‘비밀일기’이다. 열여섯에 ‘비밀일기’를 만났다. 기숙사 친구가 깔깔대며 읽던 책을 뺏어 봤는데,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나도 아드리안처럼



기발하게 생각하고 재치있게 행동하며, 무엇보다 삶을 당당하게 대하고 싶어졌다. 한동안 아드리안처럼 ‘아, 미치고 싶어라!’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마치 아드리안이 된 것처럼 과감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 무렵부터 ‘진짜 일기 쓰기’가 시작되었다. 일기가 꽤 흥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책이다. 나에게 아드리안은 책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친구이다. 그래서 친구가 보고 싶을 때 ‘비밀일기’를 본다. 한 사람의 손을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책이라면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드리안과의 데이트를 원한다면 이 책을 들어라.

최진명\_계양구 계산1동

## 어린이시의 추억과 꿈을 키워준 소년중앙~

책하면 어릴적 우리형제자매들의 쟁탈 전이었던 소년중앙 어린이 잡지가 생 각난다. 우리 집은 2남 3녀, 그다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아버지가 소년중앙을 사다 주는 집은 부유한 가정이고, 그리 많지도 않아서 소년중앙을 매달 보는 친구는 부러움과 함께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지금처럼 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책을 많이 접할 수도, 빌려볼 수도 없었던 시절. 그저 만화책을 빌려주는 가게가 뜨문뜨문 몇 개 있을 뿐이었다. 그 만화가게는 우리 집에서 1km나 떨어진 변화가 도로변에 있었다. 셋방 살던 우리 집은 안방은 엄마와 아빠와 아기가, 마루 건너 건넌방은 누나 둘과 형과 나 그렇게 한방에서 잤다. 저녁 먹고, 숙제하고 밤 8시 반쯤 되면 엄마가 모두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불을 꼭 꺼주시곤 했다. 그런데 겨울밤은 왜 그리도 심심하던지. 그리고 소년중앙과 만화책이 보고 싶던지... 우리 형제들은 서로의 용돈을 조금씩 털어서, 엄마가 불을 끄고 안방으로 가시면, 내가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형과 둘이서 추운 줄도 모르고 만화가게에 가서 소년중앙과 만화책들을 빌려왔다. 몰래 열어둔 대문으로 다시 들어가 본격적으로 4남매가 이불 속에서 정신없이 보곤 했다. 그러다가 안방 문소리가 들리면 얼른 다시 불을 끄고 자는척을 했다. 그달그달 나오는 소년중앙은 보지 못하고, 지난 것을 빌려다 보는 재미도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고,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사주시는 못하지만, 꼭 아이들 노는 토요일이면 우리 식구 모두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간다. 어릴적 읽은 책은 영원한 우리의 꿈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우리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양서를 가려주는 어른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은 우리 책꽂이에 그때의 소년중앙대신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월간 굿모닝인천>이 있어 행복하다.

채철영\_중구 신흥동2가



## 추억의 책 한 권

지난 주말, 아파트에서 도서관을 한다길래 교환할만한 책을 고르다가 아주 오래된 한 권의 책에 눈길이 멈추었다.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적인 소설 <빙점>. 지금은 기억도 희미한 중학교 2학년 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책이다. 어느날 사회 선생님께서 병이 나셨는지 학교를 못오서 대신 교감선생님(희끗희끗 날리는 흰머리가 멋지던 할머니 선생님이셨다)께서 수업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평소 조희시간에야 면발치에서 뵈 수 있었던 교감선생님이 과연 어떤 수업을 해주실지 모두들 숨을 죽이고 두 눈을 반짝이며 교감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우리들에게 교감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소설 <빙점>의 내용이였다. 단란했던 한 의사 가정. 그러나 어느날 찾아온 불행의 시작. 사랑과 증오, 그리고 복수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소녀들은 마치 내 이야기라도 되는 듯 났을 옴고 들었다. 그날 하교 길, 학교 앞 서점에서 그 소설책을 발견하고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반가웠다. 결국 얼마 후 집에서 40분 거리의 학교까지 버스를 모은 돈으로 소설책을 손에 쥐었고 그 후에는 용돈을 모아 책을 사는 것에 재미를 들여 그렇게 산 책들이 <안네의 일기>, <데미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테스>, <어린왕자>, <광장>등 이었다.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사다보니 어느새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문학소녀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좋아하는 책은 빌려 읽기 보다는 내 돈 내고 사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는다. 그렇게 한 권 한 권의 책이 나에게서는 다 의미 있는 세상에 단 한 권 밖에 없는 책이 된다. 나에게 책 읽는 재미를 알게 해주셨던 교감선생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책 한 권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장명숙\_남구 학익1동

## 책은 아이의 멋진 친구

인천에서 살다 이곳 화성으로 이사한 지 채 일년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것저것 적응이 되어 많이 편해졌지만, 이사할 당시만 해도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작은 아이의 학교문제였다. 이사 오기 전부터 아이는 이사하기를 싫어했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간다고, 네 방을 예쁘게 꾸며줬다고 설득해 봐도 막무가내였는데 이유는 새 학교로 전학가면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었다. 엄마로서 고민이 무척 많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할지 난감했다. 근 한달을 아이는 풀죽어 학교를 다녔다. 선생님을 한번 찾아뵈어야하나 하고 고민할 즈음의 어느날 학교 갔다온 아이의 얼굴이 마냥 싱글벙글이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보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어?” 하고 물으니 아이는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 오늘 심심해서 도서관에 갔었거든. 근데 학교 도서관에 진짜 책이 많아요. 내가 읽어보지 못한 새 책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대여해온 두 권의 책을

앞에 놓고 아이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이의 별명은 책벌레이다. 지금에서야 아이는 학교도서관에 보물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요즘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 책을 통해 즐거움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도 많이 사귀어 예전의 그 모습을 되찾았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책을 통해 슬기로운 지혜를 배우고, 책이 진정 좋은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순정\_경기 화성시 기산동

## 평소에 책을 늘 가까이

부모가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나도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늘 주위에 두려 애썼다. 거실 탁자 위에는 물론이고 식탁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화장실에도 뒀었다. 하루는 이를 보고 참다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제발 정리좀 하라구. 책은 책장에 좀 꽂아 둘 수 없어?” 아무데서나 찌꺼기를 책을 읽는다는 게 오히려 집안만 어질러놓는 꼴이 되어 민망스러웠다.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게이츠에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이 세상에 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 주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 주겠다고 했다. 자신의 집에는 개인도서관이 갖춰져 있고 그 공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인 요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생각하고 사색하며 깊이 통찰하는데는 책 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 만화책도 좋고 신변잡기 여성 주간지도 좋고, 아이들이 읽다만 동화책도 좋다. 책 속에 파묻혀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을 어떨까? 잠시 동안이나마 힘들고 녹록치 않은 세상사 잊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조효순\_부평구 삼산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선물’

### 다음달 테마는 ‘선물’입니다.

‘선물’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항

-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 변경사항 : 「○○동사무소」⇒「○○동주민센터」  
– 영문표기 :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 「주민센터」는 청사건물 명칭으로서 장소적·공간적 개념으로, 시·구 하부행정기관인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

### ■ 대상 및 시행시기

- 대상 : 인천시 123개동(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 전체 동 대상)
- 시행시기 : 2007년 9월 1일부터
- 문의 : 시 자치지원과 ☎ 440-2424

## 청소년 금연교육 열립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담배란 무엇이며 청소년기 흡연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게 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금연교육을 진행합니다.

- 활동일시 : 11월 24일(토)~25일(일)
- 활동대상 : 중·고등학생 청소년 30명
- 신청기간 : 11월 22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현장 접수
- 활동내용 : 교육 및 선전문 제작 3시간, 캠페인 3시간
- 참가혜택 : 자원봉사 시간 6시간 부여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 인천 세계의상 페스티벌 열립니다.

- (사)대한전통예술포조회 인천지회는 세계 주한 50여개국 대사 내외가 출연하는 ‘2007 인천 세계의상 페스티벌’을 엽니다.
- 일시 : 11월 23일(금) 오후 7시, 24일(토) 오후 12시
- 장소 : 라마다 송도비치호텔 컨벤션센터
- 주최 : 인천광역시, (사)대한전통예술포조회
- 문의 : 세계의상페스티벌 인천지회 ☎ 435-2370~1



## 함께 나들이 가요~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존방법을 알아보는 나들이에 참가하세요.

- 대상 : 초등 1학년~4학년 20명(선착순)
- 일시 : 11월 2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활동내용 : 박물관 견학, 생태 체험
- 활동장소 : 국립생물자원관(서구 경서동)
- 참가비 : 7,000원(간단한 점심 및 간식, 교통비, 체험비 포함)
- 준비물 : 음료, 필기도구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2642

##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교육

발마사지에 관심 있고, 발마사지를 배워 가족의 건강을 지킬 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은 이번 자원 활동자 전문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으시고 새로운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 일시 : 11월 5일(월)~12월 12일(수)  
매주 월·수 오전 10시~12시, 총 12회
- 장소 : 여성복지관 자원봉사자실(5층)
- 강사 : 박연순(여성자원활동센터 발마사지회 회장)
- 교육대상 : 교육 수료 후 주 1회 이상 자원봉사가 가능한 사람
- 인원 : 10명 내외
- 접수기간 : 10월 15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수강료 : 무료(재료비 별도)
-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 ☎ 434-6436~7

## 2007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열립니다

미래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자료를 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접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의 세계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1월 28일(수)~11월 30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삼산월드체육관(부평구 소재)
- 대상 : 인천관내 중·고 청소년, 학부모 / 약 1만5천여명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내용 : 진로탐색관, 진로정보관, 직업체험관, 전문가와의 만남, 부대행사 등
-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432-0717~20

## 시민도서 기증운동 펼칩니다

우리시는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권장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합니다.

- 운영주최 : 시 및 군·구
- 접수 기간
  - 1차 : 10월 22일(월)~12월 31일(월)
  - 2차 : 2008년 1월~연중(지속추진)
- 기증장소 : 시 및 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기증대상 도서 : 고서 및 신간서적, 단행본 및 전집 등
- 참여대상 : 사회단체, 학교, 공사·공단, 기업체, 공무원, 시민 등
- 지원대상
  - 시 : 강화·옹진군 도서지역 및 사회복지시설등 이관
  - 군·구 : 관내 지역 문고 및 학교 도서관 이관
- 문의 : 시 자치지원과 ☎ 440-2422

## 법정계량단위 ‘바꾸면,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 ■ 한 평, 한 돈의 정확한 크기 아세요?

평은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정확한 크기를 알기 힘듭니다. 등기부등본에 제곱미터(m²)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순금 ‘한 돈’은 3.75g, ‘반 돈’이면 1.875g 이 되어야 하지만, 금은방의 저울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밖에 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한 돈이 반 돈의 두 배지만, 무게는 두 배가 넘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 ‘평’을 제곱미터(m²)로 바꿔야 하는 이유

-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 잴 수 없는 평이 아니라, 자로 잴 수 있는 제곱미터(m²)를 쓰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계산도 쉽고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구분도 쉽기 때문에, 집값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 ■ ‘돈’을 그램(g)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 눈치 보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 한 돈, 반 돈, 한냥, 두냥... 잴 수 없는 단위로 사서 그램으로 다시 재는 불편함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팔 때 보니 무게가 부족해 억울해하지 않도록, ‘돈’이 아닌 ‘g’을 써야합니다.
- 일제 잔재도 버리고, 거래도 투명해집니다. ‘평’과 ‘돈’은 일제 잔재입니다.
- 문의 :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 Q/A 코너)



## 대인관계 증진교육 열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했던 경험 많이 해보셨죠? 무의식적인 긴장과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핵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고 건강한 내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1월 15일(목)~12월 13일(목) (총 5회, 매주 목요일)
- 장소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세미나실
- 대상 : 원만한 대인관계 향상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15명
- 강사 : 노승수 상담전문가(뉴라이프카운슬링센터)
- 접수기간 : 10월 15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 수강료 : 무료
-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 ☎ 434-6436~7

## 미추홀문화회관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미추홀 문화회관에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이하여 다채롭고 유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제26기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11월 12일(월)~12월 8일(토)
- 강좌기간 : 12월 3일(월)~2008년 2월 23일(토) 3개월
- 장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강좌내용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어린이(한자 외 4개 강좌), 성인(서예 교실 외 14개 강좌)
  -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명사 특강
  - 무료 가족 영화 감상교실
  - 겨울맞이 체험기행  
– 가족과 함께 하는 천체관측  
– 도자기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 활기차고 신나는 야외 수업  
어린이 축구교실(대상 : 6~7세, 초등학생)
  - 정규강좌 : 공예 / 미술 / 무용 / 음악 / 어학 / 교양 / 건강 / 스포츠 / 창의력 계발 / 학습 계발 / 임신부 / 전문인 양성 및 자격증반 / 창업반 / 요리 / 천연화장품&비누 / 행복 요리교실(어린이/성인)
  - 크리스마스 단기특강 / 무료 1일 특강 / 어린이 & 성인 무료 공개강좌 / 겨울방학특강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0250  
홈페이지 www.mchart.co.kr



## 클럽마니아 축제 ‘T.H.E 호감’ 열립니다.

- 클럽마니아의 세 번째 발걸음으로 ‘T.H.E 호감’이 열립니다.
- 내용 : 비보이 공연, 마술공연, 코스프레 공연, 응원단 공연 외 다양한 공연 및 부대 행사(달고나만들기, 천사점토, 클로즈업 마술, 팬시 외)
  - 일시 : 11월 10일(토) 오후 1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강당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오영애 ☎ 761-1318

## 대한민국 기업정보를 한 눈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전자공시 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입니다.

- 전자공시 시스템(DART) 이용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DART홈페이지주소(<http://dart.fss.or.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회사명을 쓰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회사의 전자공시서류 목록이 화면에 나옵니다.
  - 보고자 하는 서류명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 가능 문서
  - 유가증권 발행 :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및 재무현황 :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 조직 변경 : 합병신고서 · 분할신고서
  - 발행주식 등 5% 이상 보유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 문의 : 기업공시 제도 ☎ 02)3786-8651~3  
홈페이지 ☎ 02)3771-5523~5

##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11월 5일(월)~11월 9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7)
    - 11월 26일(월)~11월 30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비뇨기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 4시
  - 검진명 및 인원
    - 당뇨검사-혈압, 혈당 및 소변검사(내과 7) 50명
    - 전립선비대증검사-전립선 특이항원, 소변검사(비뇨기과) 5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 ☎ 580~6652
-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 실버취업박람회

- 일시 : 11월 7일(수) 오후 1시~오후 5시
- 장소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및 1층 주차장
- 참가방법 : 구직-당일 접수신청  
구인-전화접수 및 신청서접수
- 행사내용 : 취업상담, 취업게시판, 구직신청, 구인면접, 이력서대필
- 부대행사 : 무료건강검진(수지침, 안과검사 등), 이력서사진 무료촬영, 직업선택도검사, 작품전시회, 화훼전시, 폐백·떡전시·무료시식코너, 무료선물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 ☎ 466-8836  
<http://silver.namdong.go.kr>



## 갈등해결과 조정 기법 향상 교육열립니다

상대방과 공감하는 경청의 능력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문제해결의 기술을 배우는 갈등해결과 조정기법 향상교육이 열립니다.

- 주최 :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 후원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 교육기간 : 11월 27일~12월 4일 매주 화·목 오전 9시30분~12시30분 총 12시간(3시간 4회)
- 교육비 : 2만원
- 강의
  - 11월 27일 :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박수선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 11월 29일 : 갈등분석과 기법 이해(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12월 4일 : 갈등조정 원칙과 방법(박수선)
  - 12월 6일 : 갈등조정 실제(박수선)
- 접수 :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 426-2621

## 천연비누 만들어보세요

인천녹색연합에서는 하반기 가을철을 맞이하여 인천시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피부에 건강과 휴식을 주는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강좌를 마련합니다. 피부와 환경을 생각하는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면서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 일정 : 11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 11월 8일(화) : 천연비누 만들기(보습, 아토피, 여드름, 지성)
    - 11월 15일(화) :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보습 스킨 만들기
    - 11월 22일(화) : 합성계면활성제가 없어 피부와 하천이 좋아하는 주방용 세제 만들기과 아크릴 수세미 뜨기
    - 11월 29일(화) : 입술을 촉촉하게 하는 립그로스와 손을 보호하는 핸드크림 만들기
  - 장소 : 계산동 흠에버 옆 하이베라스 D동 712호 인천녹색연합
  - 참가비 : 4만원(재료비 포함)
-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와 재료비를 입금하시고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세요. 농협 546-02-072114 김동준
- 문의 : 민들레(김동준) ☎ 010-2767-6761  
인천녹색연합 ☎ 548-6274

## 제18회 시민문예대전 열립니다.

- 인천문인협회에서는 제18회 시민문예대전을 엽니다.
- 작품접수 : 작품접수 10월 25일~11월 24일(당일 우편소인 유효)
  - 공모분야 :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4개 분야
  - 분량
    - 시-5편 이상 / 단편소설-1편(200자 원고지 70매 분량) / 수필-2편(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 동시-5편 이상 / 동화-2편(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응모 작품은 반드시 워드로 작업
  - 응모자격 : 인천 및 인근 시도 거주, 등단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 시민
  - 발표 : 11월 28일(수)예정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 접수문의 : 인천문인협회 사무국 ☎ 863-1797

## 이달의 국가유공자 김명진(金明辰) 독립유공자



김명진 독립유공자는 1900년 인천출생이다. 1919년 3월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동급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벌이던 김명진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내에서 일경의 사주를 받은 교원들에 대항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맹휴가 일어나자 일경은 학교교원을 통하여 동맹휴교중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명진등은 교원들로부터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고통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진은 교원들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신망을 절단할 계획을 세우고 동급생 이만용, 박철준 등과 함



께 행동대를 조직하고 통신망 절단을 실행에 옮겼다. 3월 8일 김명진과 박철준은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전선 절단용 가위로 전화선을 절단하고 사무실 전 화기를 부식 외부와의 통신을 절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나아가 조직적인 동맹휴학을 계획하던중 지난 일이 발각되면서 김명준은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이 일로 그는 1919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전신법, 철도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같은해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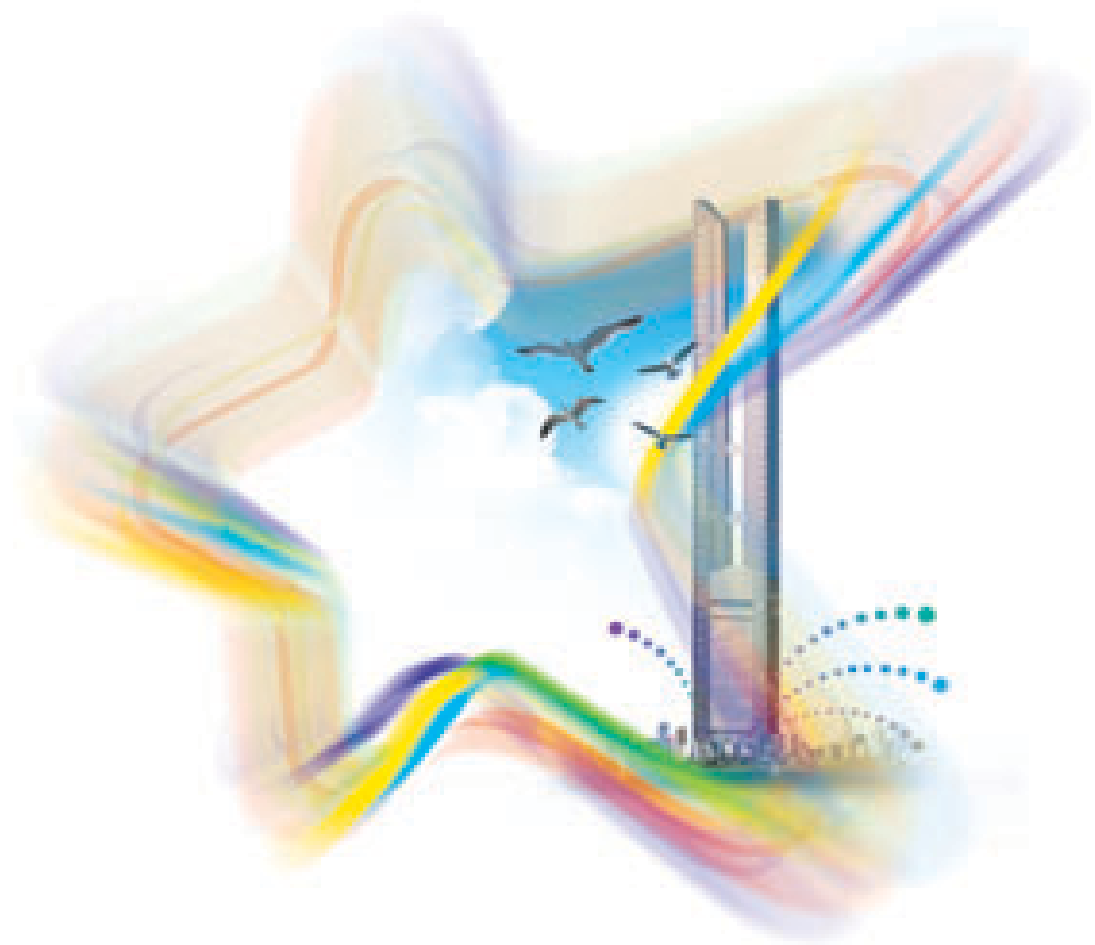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 ☎ 430-0125

바다의 유유, 그이름 평양유유



굴은 완전식품으로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부른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철분, 아연, 인, 칼슘 등이 골고루 들어 있다. 빈혈 치료에는 철분과 촉매역할을 하는 구리가 필요한데 굴에는 흡수가 용이한 유기동이 들어 있어 빈혈 치료에 좋다. 이를 한방에서는 굴이 간의 기능을 도와 주고 보혈작용을 한다고 한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타우린 등 각종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뇌졸중, 동맥경화, 담석증 등에 좋다. 옛날부터 '굴은 봄부터 여름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달 이름에 'R'자가 없는 5~8월에는 굴을 먹지 말라'는 영국 속설도 있다. 우리시 옹진군과 강화군의 섬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으며 겨울에는 바닷물이 찬 반면에 여름에는 따뜻해 굴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 특산품으로 인기가 높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

전 세계를 통틀어 ‘도시’를 테마로 열리는 최초의 엑스포,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80일간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라는 주제로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도시와 기업들이 함께하는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인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인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인천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기간 2009년 8월 7일(금) ~ 10월 25일(일) 총 80일간
- 장소 인천전역 (주 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원(약 50만㎡)  
부대행사장 - 중앙공원, 엑스포기념관, U-City체험관을 포함한 44만㎡)
- 관람목표 1천만명(해외관람객 100만명 포함)